

# 칭하이 무상사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44호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CD-EG146 <영어>

**좋은 이웃의 미덕 (상, 하)**

2001. 6. 11. 미국 플로리다 센터 단체명상

별로 우호적이지 않거나 대화하기 힘든 이웃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이 강연에서 스승님은 이웃들 사이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는 법과 더불어 '좋지 않은 이웃'을 좋은 친구로 만들 수 있는 절묘한 방법을 알려 주셨다.

CD-CG02 <중국어>

**긍정적인 생각의 힘 (상, 하)**

2001. 12. 30. 미국 플로리다 센터 크리스마스 경축 행사

스승님은 다시 한 번 긍정적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셨다.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전심을 다해 사람들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 우리 수행자의 경우에도 말할 나위가 있겠는가? 그래서 스승님은 “계율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신다.



CD-CG04 <중국어>

**나눔의 공부**

2001. 12. 25. 미국 플로리다 센터 크리스마스 경축 행사

2001년 12월 플로리다 센터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선사(禪四)는 말 그대로 '사랑의 선 행사'였다. 이 CD는 스승님이 선 기간 동안 중국 동수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하신 중국어 법문으로서, 사제지간의 절절한 그리움과 축복, 그리고 수행 전반에 걸친 동수들의 질문에 대한 스승님의 명확한 답변들이 들어 있다.

CD-CI01 <중국어>

**우리의 본성을 깨달아야 진정한 행복하다 (상, 하)**

2000. 5. 2. 홍콩 강연

스승님은 홍콩 강연에서 솔직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간단명료하게 뜻깊은 말씀을 전하셨다. 스승님은 고대 현인들과 익숙한 일상생활의 현상들을 예로 들어 청중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내면의 대지혜를 발견하는 방법을 일깨워 주셨다.



##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출판물



<어울락어>

어울락어 판 『즉각 깨닫는 열쇠 제15권』이 정식으로 출간되었다! 신실하게 진리를 구하는 어울락 친구들에게 크나큰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스승님의 1988년 포모사 강연들이 수록된 이 책엔 총 23장에 걸쳐 다양한 수행 관련 주제들이 망라되어 있다. 명쾌하고 깨달음이 가득한 내용은 세심히 정독할 만하다.



<스페인어>

**즉각 깨닫는 열쇠**

제1권 (재판)



<몽골어>

**즉각 깨닫는 열쇠**

제1권 제6권





채식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어떠한 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 칭하이 무상사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44호**

출판일자 : 2003. 12. 6.  
 설립년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031) 772-925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앞표지 안/ 뒤표지	영혼의 고양
	칭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CD/ 출판물/ DVD
2	<b>다채로운 이벤트</b> 미국/ 태국/ 포모사/ 캐나다/ 칠레/ 독일/ 이탈리아/ 영국/ 호주
11	<b>시</b> 깨달은 스승의 자비와 사랑
12	<b>수행 상담소</b> 구하면 얻으리니
13	<b>수행 일화</b> 귀를 기울이면 신이 모든 곳에 계신다
14	<b>핫 토픽</b> 황금시대의 새로운 삶
10/ 14	<b>감로범어</b> 이상적인 생활 방식
14	<b>지혜어록</b> 유행병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 관음법문/ 자신의 방어체계를 잘 활용하라
16	<b>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b> 시공과 개념을 초월하는 관음법문/ 여래의 경지
19	<b>골라 뽑은 수행문답</b> 채식은 심신을 가볍고 하고 재앙을 방지한다/ 명상을 통해 업장을 씻어내라/ 질병은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 대변화는 고양될 수 있는 계기다
22	<b>채식시대</b> 내면의 면역력을 활성화시켜라/ 우리는 사실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채식을 하면 더 건강해진다
24	<b>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b> 부처와 마는 한 생각에 달렸다
25/ 43	<b>매체보도</b> 애완견용 채식 사료 정식 출시!/ 구호 물품 트럭이 오다!
25	<b>전세계 채식 식당</b>
26	<b>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행사</b> 만물을 키우는 봄날의 비바람-깨달은 스승의 모범을 따르는 상담 교사
30	<b>이야기 세상</b> 격리를 안거로 삼다/ 마음속의 스승님과 함께 사스와 싸우다
32	<b>제일선에서</b> 포모사 원주민 결혼 박람회
34	<b>신기한 감응</b> 스승님의 그림을 통해 얻은 신심-불심을 딛고 이해로 나아가기까지/ 모든 것을 스승님께 맡기다/ 놀라운 기적
37	<b>스승님의 농담</b> 머리가 아프다고요!/ 맘대로 계산법/ 놀러 가는 사람은 누구?
38	<b>수행의 길목에서</b> 단순하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 인도에서 '당신' 을 알아 가며
40	<b>사랑의 실천</b> 인도/ 아르헨티나/ 포모사/ 아프리카/ 미국/ 한국
50	<b>행사 메모</b>
51/ 53	<b>감사 편지</b> 파리 주재 알제리 대사관/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
57	<b>관음 웹사이트</b>
58	<b>전세계 연락처</b>
64	<b>스승님 말씀</b> 빛과 소리는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다
뒤표지 안	<b>무상 예술</b> 2003 여름 천의



## 미국 하와이 소식

# 칭하이 무상사, ‘제순(帝舜)문화국제대학’ 학장에 위촉



천홍강 박사가 순 황제와 칭하이 무상사의 청동상을 제막하고, 스승님께 순 황제 트로피와 훈장을 수여하다.

【오늘룰루】 2003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 600여 명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모여서 세계 평화를 위해 명상하는 한편, 화교협회의 설립과, 중국 전통 윤리와 문화를 21세기에 구현하려는 이념을 가진 제순문화국제대학의 설립을 경축하는 축하연에 참석했다.

동수들이 도착하자 아름답게 진열된 스승님의 그림과 포스터, 경서, 오디오 및 비디오테이프, DVD, 만세등, 천상의 보석과 해피요기 의상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 명상 홀 단상엔 하늘색 바탕에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라는 문구가 새겨진 족자 형태의 스승님 법상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동수들은 그 주위를 화분과 열대 꽃으로 정성스레 장식했다. 동수들은 단체명상을 하는 동안 스승님의 축복으로 평화로워지고 고양되었다. 많은 동수들이 이번 행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고 하면서, 특히 최근 스승님의 안거로 인한 은총 덕분에 세계의 의식 수준이 고양되는 크나큰 축복을 느꼈다고 했다.

5월 16일 마지막 명상을 마친 동수들은 정장을 하고 호놀룰루 시내의 차이나타운 문화광장에 있는 뉴엠프리스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동수들은 위에서 언급한 두 기구의 설립을 축하하고, 화교 사회의 유명 인사들과 함께 전 세계적인 박애 활동과 관음법문 전수를 통해 인류에 공헌하고 계신 스승님께 경의를 표했다. 스승님의 이런 정신은 중국 전통 윤리에 담긴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연회는 제순문화국제대학의 설립자이자 총장인 천홍강 박사가 이 대학의 설립 이념과 정신을 낭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어 칭하이 무상사에 대한 제순문화국제대학 명예 학장 임명식과 함께 순 황제와 칭하이 무상사의 청동상 제막식이 거행되었고,

이 두 단체의 성공과 번영을 기원하는 전통 무용, 용 춤과 사자춤이 공연되었다. 그 다음엔 스승님이 보내신 동수가 스승님을 대신해 명예 학장직을 수락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또한 스승님께는 순 황제 황금 트로피와 훈장도 수여되었는데, 현재 스승님이 전세계의 의식을 고



연회 현장(위)과 다채로운 공연들(아래).



이 행사를 보도한 2003년 5월 21일자 하와이 『세계일보』 기사.



양시키기 위해 안거 중이신 관제로 관음사자가 대신 받았다.

연희석에선 격조 높고 맛있는 저녁 만찬과 더불어 하와이 전통 무용, 코 피리 연주, 아름다운 한국 민속무용, 중국 부족 춤, 바이올린

독주 및 이중주 등 멋진 공연이 펼쳐져 내빈과 동수 모두 아름답고 멋진 저녁 시간을 보냈다.

##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

### 실리콘밸리에 다시 한 번 스승님의 복음을 전하다

[산호세] 산호세 센터는 올해 2월 두 차례의 비디오 강연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데 이어 4월 12일에는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시의 마운틴뷰 공립 도서관에서 세 번째 강연회를 가졌다. 이 마운틴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컴퓨터 엔지니어, 전문가, 기업가, 환경 연구가, 예술가, 학자들 외에 영적인 구도자들도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매우 관대하고 개방적이어서 이번 강연회에 많이들 청중으로 참석했다.

강연회 당일 강연회장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와 인근 지역에서 온 방문객들로 만석을 이뤘다. 비디오가 상영되자 신실한 참석자들은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과 무한한 축복에 고요히 잠겨 들었으며, 중간

휴식 시간에는 동수들이 사랑으로 준비한 맛있는 채식 샌드위치와 스낵, 음료를 함께 즐겼다. 이어 관음법문과方便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고, 청중들 대다수가 남아서方便법을 배웠다. 다음으로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던 의문점을 속시원히 해결한 새로운方便법 수행자들은 행복과 축복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 미국 미시간 소식

### 미시간에 두루 퍼진 스승님의 가르침

[미시간] 미시간 센터 동수들은 2003년 4월 26일과 27일 주말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일로 두 차례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26일 토요일 행사는 미국의 영성 잡지인 『페노메뉴스(Phenome News)』가 주관하는 ‘몸과 마음, 영혼의 축제’였는데, 200여 단체가 참가한 이 축제는 미시간에서 열린 동종 행사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행사였다.

스승님의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하자 스승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온 행사장에 두루 퍼져 나가면서 많은 이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 그 중 한 수피교도는 비디오를 몇 분 동안 경청한 후 TV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외쳤다. “맞아요, 그녀는 진짜 스승이에요!”

이튿날 행사는 ‘지구의 날’ 축제였다. 동수들은 이번 행사에선 스승

님의 출판물 전시와 강연 비디오 상영 외에 부스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순수 채식 음식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들에 참여했던 동수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이 수많은 이들의 마음에 가 닿음으로써 그들에게서 관심과 사랑, 온정이 발산되는 모습을 목격하곤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 태국 소식

# 스승님의 축복이 최고의 상

[나컨랏차시마] 2003년 3월 30일 태국 동수들은 신실한 구도자들에게 스승님의 법문을 소개하고자 방콕의 북동부 도시인 나컨랏차시마시(별칭: 코랏)에서 비디오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 당일, 방문객들이 이른 아침부터 도착하기 시작했으며, 동수들의 초청을 받은 '교사생활발전협회' 소속 손님들도 참석하였다. 스승님의 사랑과 가피가 강연장을

온통 감싼 가운데 한 참석자는 꿈에서 겪은 체험을 이야기해 주었다. 꿈에서 아주 높은 산을 봤는데 그 산에는 한 여인이 머물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동수들은 그가 강연회를 찾아온 것이 자비로운 스승님의 인도 덕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비디오 상영이 끝나자 약 1/3 가량의 청중들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한 노인은 원래 오래 앉아 있지 못하는 상태였는데도 이날은 강연회가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졸곤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이는 물론 스승님의 가피력 덕분이었다! 이 외 두 명의 어린 학생들도 방편법을 배웠다. 이번 강연회가 성공을 거둠

에 따라 매일 저녁마다 단체명상을 할 수 있게 되고 일요일마다 채식 요리 강좌도 열리게

돼 동수와 예비 동수 모두 큰 이로움을 얻었다.



스승님의 사랑과 가피력으로 가득 찼던 나컨랏차시마 강연회장.



나컨랏차시마 주민들이 스승님의 전단지를 주의 깊게 읽고 있다.

## 포모사 소식

# 천국의 눈부신 정경이 국회에 펼쳐지다

[타이베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는 우리 협회의 각종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입법원 국회 도서관의 구민 관장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2003년 4월 23일 아침 스승님의 그림 복제

화 9점을 입법 도서관 측에 선사했다. 구민 관장은 4층 도서관에서 그림들을 직접 전달받았다.

아홉 점의 그림 중 일부가 도서관에 걸리자 주위가 즉시 환해졌으며 직원들도 관심을 나타냈다. 나머지 그림들은 도서관 자료실에 걸어 대형 유리를 통해 행인들이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그림 중 '조화'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구 관장은, 작품에 나타난 강함과 약함, 거



침과 부드러움은 외면의 대조를 표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영혼과 마음을 대조한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그는 이 작품을 통해 현실의 어떤 환경에서도 강한 것과 약한 것, 거친 것과 부드러운 것을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법을 깨우쳤다고 덧붙였다.

1992년부터 1998년까지 아태지구 국회도서관협회 회장직을 역임하고 현재 유네스코 산하 국제도서관 연맹의 상임 위원을 맡고 있는 구 관장은 국제적 시야와 인도주의적 관심을 갖고 있는 세계적인 학자이다. 그는 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의를 나타냈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들은 내게 특별한 기쁨과 고양된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친구들을 접할 때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무조건적인 헌신을 베푸는 그 신실함과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진정한 용사, 이 사회의 영웅이라 칭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사회에 봉사하려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는 또한 스승님에 대해서도 세상에 신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내려온 사자(使者), 황금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주는 사자로 생각했다.

그리고 구 관장은 스승님의 그림이 입법원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심어 줄 것으로 확신했다. “입법원은 국가 대사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계획안을 토의하는 장소인데, 그 중 국회 도서관은 입법원에서 가장 개방적인 공간입니다. 스승님의 작품 속에 깃든 영성과 예술의 조화는 분명 이곳을 보다 완벽한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분주히 국회를 오가는 사람이 단 몇 초만이라도 이 그림들을 본다면 잠



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멋진 감응과 고양감을 느껴 지혜가 커지고, 일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 정말 이상적입니다.”

## 정성공(鄭成功) 문화절-예술과 영성의 향연

[타이난] 타이난 시정부와 타이난 예술센터는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협조를 얻어 타이난 예술센터 ‘홀리데이 플라자’에서 정성공 문화절을 개최했다. 정적인 스승님의 예술 작품 전시전과 동적인 음악 연주, 노래, 춤 등의 공연이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타이난 문화국장, 타이난 예술센터 주임, 그리고 50여 명이 넘는 각계각층 인사들을 비롯하여 1천여 명이 참관해 신의 성스런 사랑을 만끽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신문과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국 등 지역 매체들이 이 행사를 널리 홍보했으며, ‘승리의 소리’ 라디오 방송국은 동수와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스승님과 관음법문, 이번 예술 작품전을 소개하기도 했다.

행사 당일에는 중국 화가인 쉬차오선 박사가 현장에서 아름다운 매화를 그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 기증했고, 중국 서예 서각 예술협회의 천치산 선생과 타이난의 쟁쟁한 서예가 9인이 즉석에서 스승님의 감로법어와 무자시를 써 내려갔다. 천 선생은 휘호한 후 무자시를 낭송해 예술적 분위기의 극치를 연출했다.

대나무와 난초로 꾸며진 전시장에





는 천의, 만세등, 그림, 시집, 창작곡 등 스승님의 예술 작품들이 우아하게 전시돼 방문객들의 탄성을 자아냈으며, 참관객들은 스승님의 창작품에 깃든 천상의 전경과 사랑의 바다에 깊이 빠져들었다. 우리는 대형 스크린과 많은 TV 세트를

통해 스승님의 각국 강연을 계속해서 방영했고, 아울러 ‘음악으로 하나 되는 평화의 세상’ 음악회와 각종 공익 활동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도 방영하였다.

타이난 문화국장 쉬경씨우 씨와 귀빈들은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참관한 후 칭하이 무상사의 역동적이고 풍부한 창작력에 감탄해 마지않으며 거기서 사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걸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다. 또 스승님의 작품에 담긴 완숙한 회화 기법으로 봐서는 스승님이 정식으로 그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게 상상도 안 된다고 놀라워했다!

전시회와 함께 열린 ‘봄의 소나타’ 야외 공연에서는 포모사 남부의 일류 예술가들과 ‘난인(南音)의 명인’ 인 왕썬썬 양, 원주민 다원문화 예술단 등 널리 알려진 단체들이 한데 어우러져 독특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청중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이번 행사의 기획을 맡은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난 센터는 스승님의 사랑을 귀감으로 삼아 오랜 세월 동안 타이난 곳곳을 누비면서 ‘수행과 일상생활의 합일’에 대한 신념을 몸소 실천해 왔으며, 교도소 교화 활동과 환경 보호 및 이번 정성공 문화절과 같은 예술 행사를 통해 스승님의 범우주적인 사랑의 정신을 전하고 있다.

이 멋진 행사는 썬 TV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 제46편에 방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hichannel/index.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중국어, 영어 자막 지원)

## 새로 문을 연 타이베이 센터 ‘사랑의 바다 예술광장’

[타이베이] 타이베이 센터는 단체 명상에 참가하는 동수들은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이를 수용할 만한 단체명상 장소를 빌리기가 어려워 단체명상 장소를 자주 변경해야만 했다. 그러나 스승님의 축복과 동수들의 단결된 힘으로 시내의 파안 지역에 새로이 ‘사

랑의 바다 예술광장’이란 이름의 명상센터를 마련해 올해 4월 27일 낙성식을 치렀다. 새로운 센터는 약 500평 규모의 실내에 다용도 기능을 목적으로 기획된 예술광장, 수행 정보센터, 명상 지역, 그리고 영성 서점, 천의 및 천상의 보석 전시실, 식당 등의 쇼핑 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요일을 제외하곤 매일







개방하고 있다.

센터가 문을 여는 날, 연락인인 루어 사형과 황 사저는 시후 센터 장주 대표를 초대해 함께 간소하면서도 화기애애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 새 센터 개관 기념 리본 커팅식을 치렀다. 마침내 ‘자기 집’을 갖게 된 타이베이 관음 가족들은 스승님의 사랑과 행복감을 느끼며 다른 지역 동수들과 함께 음악 공연과 진수성찬을 즐겼다.

타이베이 동수들에게 있어서 몇 달 전 단체명상 시간에 연락인으로 부터 전해 들은 스승님의 축복의 말씀은 결코 잊지 못할 일이었다. 스승님은 새로운 센터의 부지와 건축 계획안을 보고받으시고는 친히 연락인에게 전화를 걸어 축하해 주셨다. “이처럼 좋은 센터 장소를 구했다니 여러분을 대신해 정말 기쁩니다. 축하합니다! 내게 보낸 계획안은 아주 훌륭합니다. 아주 괜찮은 생각이니 그대로 추진해도 되겠어

요! 새로운 부지와 건물 신축에는 분명 나의 축복이 함께할 겁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당시 통화할 때 옆에 있었던 황 사저는 그 순간 스승님이 전하시는 사랑과 축복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스승님의 은총으로 타이베이 ‘사랑의 바다 예술광장’과 다른 모든 센터들이 번영하길 믿고, 또 그러길 간절히 기도하는 바이다.

타이베이 ‘사랑의 바다 예술광장’ 주소

B1, No. 5, Lane30, Alley78, Sec. 2, Fuxing S. Road, Da-An District, Taipei, Formosa

전화번호: 886-2-27066168/ 886-2-27062628

E-mail: tpe.light@msa.hinet.net

## 캐나다 온타리오 소식 스승님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알리다

【캐팀】 2003년 4월 5일 캐나다 동수들은 온타리오 주 채텀의 연례 ‘여성 엑스포’에 참가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주민들에게 소개했다.

갑작스런 상황 때문에 부스를 꾸밀 시간이 하루밖에 없었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창조적인 영감이 솟아난 한 사저 덕분에 작업이 착착 진행되어 제시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우리 부스를 찾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부스와 스승님의 매혹적인 미소를 보고선 미소와 함께 탄성을 지르곤 했다.

이날 행사를 하는 동안엔 어디서나 다정한 미소를 볼 수 있었다. 우리 또한 스승님을 대중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했다. 전에 스승님에 대해 들어 보지 못했던 많은 방문객들이 스승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스승님은 높은 세계에서 송고한 이상을 갖고 내려온 아름다운 영혼이기도 하기에 관음법문의 메시지를 읽은 사람들은 스승님의 내적인 아름다움도 함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칠레 소식

# 칠레의 황궁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다

[산티아고] 2003년 3월 25일 사랑하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비디오 강연회가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에서 버스로 1시간 반 거리에 위치한 비냐델마르(Vina del Mar)에서 열렸다. 이곳에서 태어난 사저가 그 유명한 리에스코(Riesco) 황궁 회의실을 강연장으로

로 섭외했다.

강연회 당일에는 산티아고 동수들이 도착해 준비 작업을 도왔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강연회가 끝난 후 2/3 가량이 남아 방편법을 배웠다.

황궁 직원들의 고운 마음씨 덕분에 우리는 다시 한 번 모임을 기획해 같은 곳에서 명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 활동을 통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스승님의 가피력을 다시 한 번 발견할 수 있었다.

## 독일 소식

# 스승님의 뮌헨 강연 10주년 기념일 경축 행사

[뮌헨] 1993년 5월 1일은 사랑하는 스승님이 뮌헨에서 첫 강연을 하신 날이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3년 5월 1일 뮌헨 동수들은 일반 친구들과 함께 연락인 집에서 맛있는 채식 바비큐와 어울락 식 뷔페를 즐기며 이날을 경축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동수들이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긍정적인 진보를 체험했다고 감회를 얘기했다. 모두들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의 힘에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이처럼 위대한 살아 계신 스승을 만날 수 있었던 행

운에 감사해했다.

배우인 한 사저는 순회공연 동안 겪은 감동적인 일화를 떠올렸다. 하루는 어떤 마을에서 공연을 마친 후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중국 음식점에 갔다. 먹을 게 없을까 봐 걱정도 되고 또 다른 동료들은 다 육식을 하는 터라 그녀는 우울하고 힘이 빠진 상태에서 화가 나 중얼거렸다. “나는 채식을 하는데!” 그때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나타나듯 자그마한 체구의 중국인 여 종업원이 나지막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도요.” 사저는 순간 그 여 종업원을 올려다보았고, 둘은 이구동성으로 상대방에게 묻고 똑같이 대답했다. “칭하이 스승님?” “맞아요!”

그 즉시 두 사저는 믿음직한 친구를 만난 듯 포옹을 했다. 스승님의 무소부재한 사랑으로 인해 이 배우는 낯선 마을에서 예상치도 않게 근사한 채식 식사를 할 수 있었다.

경축 행사에서 행복하고도 사랑이 넘치는 동수들의 모습을 본 몇몇 손님들은 동수들의 밝고 쾌활한 생활 방식에 감탄을 표하며 우리 단체에 들어오고 싶어했다.

뮌헨 동수들은 지난 10년간 관음법문을 수행한 후 영성과 세속적인 면 모두에서 확실히 진보했음을 느끼는 가운데 다음 10년 동안엔 더 큰 진보를 이룰 수 있길 기대했다.





## 이탈리아 소식

**영성의 향기 가득했던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

[볼로냐]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아동 도서전이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2003년 4월 2일부터 5일까지 성대히 치러졌다. 파리 동수들은 이 기회를 빌려 『침묵의 눈물』과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등 아동에게 적합한 스승님의 출판물을 널리 알렸다. 동수들은 전세계 출판계가 상호 교류하는 이 국제적인 무대에서 아동 도서 출판업자들과 인연을 맺고, 포모사 전시관에서 신의 ‘작은 아이들’에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다.

방대하고 다양한 전세계의 아동 도서들이 정렬된 전시장에서 동수들은 다른 부스들에 팸플렛과 전단지를 돌림으로써 우리 부스를 알리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 스승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아프리카 전시관의 출판업자들은 스승님의 아프리카 흥법 강연에 대해 듣고는 크게 감동하면서 영성 추구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눈을 빛냈다.

전시회 마지막 날인 토요일, 포모사 전시관의 다른 참가자들이 일정보다 일찍 철수하는 바람에 전체 전시관이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부스로 쓰이게 되었다. 마침 주말이라 방문객들이 물밀듯이 몰려드는 등 모든 안배된 상황이 딱 맞아 떨어져서 정말 스승님께 감사했다. 동수들은 전단지를 긴급히 추가 인쇄해 스승님의 가르침과 관음법문을 전하는 동시에 부스를 새롭게 장식해 보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었다. 준비해 둔 견본책자는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방문객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각자의 주소를 남겼는데, 그 중 오스트리아로 향하던 한 독일인은 오스트리아 센터의 주소를 물어보기도 했다. 또 몇몇 서점 책임자와 도서관 직원이 보다 많은 자기 고장 사람들이 스승님과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견본책자를 요청해서 우리 마음을 더없이 기쁘게 만들었다.

파리 동수들은 이번 도서전에서 스승님의 일을 할 때 믿음과 사랑의 마음만 갖는다면 스승님의 무소부재하고 강력한 가피력과 하나가 되고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때 맞춰 이루어진다는 것을 깊이 체득할 수 있었다.

## 영국 소식

**몸과 마음, 영혼의 박람회,  
그리고 2003년 비디오 강연회**

[런던] 제27회 ‘몸과 마음, 영혼의 박람회’가 2003년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되었다. 런던 센터는 작년처럼 올해도 부스를 마련해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했으며, 사람들의 호응 역시 예년처럼 열렬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에 경외심을 느꼈다. 또한 우리 부스에서 발산되는 사랑과 긍정적인 에너지에 놀라고, 스승님과 관음법문에 대

해 설명하는 사형사저들의 지혜와 자연스러운 태도에 다시 한 번 탄복하기도 했다. 한 방문객은 일주일 내내 박람회장을 돌아보는 동안 우리 부스 앞이 계속 붐비는 모습을 보고는 매우 놀라워했다. 우리는 박람회장에





서 견본책자와 뉴스잡지, 비디오 강연회 초대장 등의 전단지를 배포했다. 전단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즉시 우리 부스를 찾아와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함에 따라 우리는 앞으로 열릴 비디오 강연회에 이들을 초대했다.

화창한 6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 학수고대했던 강연회가 런던 북부에 있는 웹블리 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 모두 독특한 방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감동시키는 스승님의 지혜의 말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비디오 시청 후 많은 사람들이 남아서 방법법을 배웠다. 좋은 반응을 보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손님들의 얼굴이 평화와 법희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 호주 소식

# 스승님의 가르침이 리스모어 주민들의 영성을 키우다

[바이런베이/ 노던리버즈] 최근 바이런베이와 브리즈번 센터의 동수들은 리스모어의 서던크로스 대학에서 관음법문을 소개하는 비디오 강연회를 가졌다. 정경이 아름다운 호수 근처 허브 식물원에서 열린 이번 강연회에서 동수들은 비디오 강연회를 통해 많은

이웃들이 삶의 풍요로움과 평온을 얻을 수 있었음을 엿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크나큰 만족과 온정을 느꼈다.



감로법어

칭하이 무상사/ 1994. 9. 29. 싱가포르 (원문 영어)

한 사람이 많은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자신의 선택을 믿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 깨달은 스승의 자비와 사랑

독일 씨아오위 동수 (원문 중국어)

당신이 이루신 것은  
바로 내가 갈망해 왔던 것

당신은...  
과거 구도의 여정 중에  
침묵의 눈물로 바다를 이루셨지요

나  
이제 당신의 제자로서  
다시는 윤회의 올라미에 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눈을 들어 바라보시는 한순간에  
목마른 영혼들은 법히로 충만하고  
당신은 달콤한 미소 한 번으로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전하십니다...

사바의 감옥, 난민 캠프 속에  
신의 빛이 그 모든 어둠을 흩어 버리시니  
남해 보도(寶島)에, 유럽과 미대륙에  
행복의 천국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손들어 과거에 이별을 고하고  
구름 하나에도 걸리지 않으니  
미래의 문은 영원의 궁전으로 통하고  
당신의 연꽃 같은 발길 따라 한 걸음씩 쫓아갑니다



# 구하면 얻으리니

(원문 영어)

현대 통신 기술의 편리로 인해 동수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수행 상담소에 질문을 보내고 또 빠른 회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효율적인 면에서 기존의 편지 형식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전지전능한 스승님께서 제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은 그보다 더 신속하고 놀랍기만 하다. 다음 두 가지 사례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 첫 번째 사례

관음법문 수행자인 수헨드라는 호주 시드니에 사는 유학생이다. 최근 그는 자신의 신체적 증상에 관해 쓴 이메일을 수행 상담소로 보내 왔다. 그런데 상담을 요청한 후 그는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되었다.

### 질문

저는 지난 3, 4개월 동안 눈꺼풀 아래가 심하게 떨리는 증상을 겪고 있는데 왜 그런지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일하면서 공부하는 게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하고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잠도 충분히 잤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눈꺼풀의 떨림은 매일, 거의 실새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요즘 들어선 관공과 관음을 할 시간이 부족하긴 하지만 저는 이런 증상을 무시한 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저의 건강 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혹시 이것이 저에게 닥칠 어떤 나쁜 일, 혹은 좋은 일을 스승님께서 미리 암시해 주시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말 특이한 일이라서 스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스승님! 스승님만 믿습니다!

스승님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사

형사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행 상담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이메일로 보냈다.

### 답변

수헨드라 사형님,  
당신의 문제는 관음법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 힘들면 병원에 가 봐야 합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니 몸이 힘들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관음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관공과 비율을 맞춰서요.) 한동안 일을 그만두고 잠도 더 많이 잤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는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축적된 스트레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드니 센터 단체명상에 자주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상황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던 명상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대한 이완하고 내면의 스승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음법문이란 걸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관음법문만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당신이 수행을 계속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신께 모든 걸 맡긴다면 기분도 나아지고 학업도 향상될 겁니다. 만일 이 점을 잊는다면 신은 때때로 신체적 증상을 통해 이 세상의 고통스런 본질을 이해하도록 당신을 일깨울 것입니다.

스승님의 사랑과 함께.



**이 서신에 대한 수헨드라의 회신:**

눈꺼풀 떨림으로 상담을 했던 수헨드라입니다. 명상에 대해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앞으로도 제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스승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게 일어난 불가사의한 일에 대해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상담소로 보낼 메일을 다 쓰고 나서 편지 보내기를 클릭하자 제 문젯거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말 신기하지요!

또 한 가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2주 후 강의실에서 노트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강의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수업이 있는 곳이라서 저는 노트북을 되찾을 기대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오후에 찾을 수 있었답니다. 바로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더군요!

제게 이토록 많은 축복을 내려 주시는 스승님과 신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번 스승님과 신께 감사드리며, 저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사형사저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스승님과 신께서 계속 우리와 이 세상, 그리고 지구상의 만물을 축복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두 번째 사례**

가장 사랑하는 스승님께,

스승님께 메일을 보내고 이틀 후 저는 꿈속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답니다. 일주일 새에 스승님의 꿈을 두 번 꾸었는데, 스승님은 계속해서 나가도록 격려해 주셨지요. 그날 밤부터 저는 대학에 강의가 없는 날이면 여섯 시간에서 열두 시간씩 명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스승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걸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늘 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곤 했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스승님의 뜻에 따른 것이며, 그것이 또한 제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스승님, 스승님이 그리운 나머지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저는 저 자신을 먼저 돌보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 있고, 어떠한 것도 직면할 만큼 강하답니다.

스승님의 생신을 축하드리며!

2003년 5월 3일

호주 멜버른에서

치썬 올림

**귀를 기울이면  
신이 모든 곳에 계신다**

에이미 펜턴 사저  
호주 바이런베이/ 노던리버스  
(원문 영어)

얼마 전 친정에 갔을 때 마침 집에서 기독교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축하용 후식을 만들게 되었다. 내가 요리를 시작하자 아이들 여러 명이 다가와 도와주었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선명한 색깔의 설탕을 뿌리며 도넛을 함께 만들었다.

그 중 여섯 살짜리 여자 아이가 후식의 모양을 잡는 일을 맡았다. 저녁이 되어 우리는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들에게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때 바로 내 옆에 앉아 있던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 “사실 전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거죠!”

나는 이 작은 아이의 말에 정말 크나큰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다. 한편으로는 스승님이 늘 나를 돌보고 계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 가르치신다는 것을 느끼곤 마음속 가득 충만한 은총을 느꼈다. 나는 스승님이 진리는 흐르는 물처럼 순수한 사람의 가슴속에서 박동하고 살아 숨쉬며 길을 따라 흐르면서 많은 이들을 감화시킨다는 것을 바로 내 곁에서 보여 주시는 걸 강렬히 느낄 수 있었다.





## 이상적인 생활 방식

채식을 하고 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어떠한 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1989. 10. 13.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01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곧 자신을 위한 최고의  
의사가 될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 1994. 9. 29. 싱가포르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46



## 유행병에 대한 최고의 치료제 관음법문

칭하이 무상사/ 1988. 11. 2. 포모사 핑둥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15

세상은 이미 황금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황금시대는 영성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며, 그에 걸맞지 않은 사람들은 점차 도태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름도 들어 보지 못했던 병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역병이 없다면 전쟁이 있을 것이고 전쟁이 없으면 자연 재해



# 황금시대의 새로운 삶

나 태풍 같은 재난이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은 탓입니다! 업장이 너무나 무겁고 공업(共業)이 너무나 많아서 그런 거지요! 그런 공업이 한두 사람의 죽음으로 지워지지 않으면 전염병으로 바뀌어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바 세계는 정말 믿을 수 없습니다! 약에만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약이 있어도 제때 사람을 구해 내지 못하기도 하니까요.

신은 매우 총명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병 외에 또다른 질병을 새로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신의 뒤만 쫓게 되지요. 우리는 스스로 매우 문명이 발달했다고 생각하지만 인과의 법칙의 왕은 그보다 훨씬 노련합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잡아챌 수 있는 데 비해 우리 반응은 그만큼 신속하지가 못합니다. 열이 나는 순간 죽을 수도 있으니 의사를 부른다 해도 너무 늦습니다. 의사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역시 같은 병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병에 걸린 환자들이 때가 다 됐거나 업장이 닳친 경우라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으면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떠날 때는 제때 구해 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의지할 곳이 없지요. 우리들은 조만간에 모두 죽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 기댈 만한 '만능 보험 회사'가 있다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 (대중 웃음과 박수) 정말 우리는 관음법문을 수행할 때 가장 안전함을 느낍니다. 어떤 병이 생겨도 걱정스럽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영혼이 아주 평온한 것 같은데 자신도 왜 그렇게 평온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영혼은 알고 있지요.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은 겁니다.

## 자신의 방어 체계를 잘 활용하라

청하이 무상사/ 1994. 9. 29. 싱가포르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46

건강하고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생활은 단순하게 하되 사고는 고차원적이어야 합니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생각만 해도 여러분의 생활 형태와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니 항상 긍정을 유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재난과 질병도 피할 수 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또는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늘 긍정적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병과 문젯거리, 매우 낮은 생각과 우울한 에너지를 가져오니까요.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지요. 신이 항상 여러분 곁에 있으며 시방 세계의 스승이 항상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방어 체계가 고장 나지 않도록 잘 돌보십시오.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말로써 잘 돌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걸 아주 간단합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해도 여러분에게 막대한 이로움을 줍니다.





## 시공과 개념을 초월하는 관음법문

칭하이 무상사/ 1991. 8. 11.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187b

### 수행은 두뇌를 고친다

입문한 후 생사를 해탈하더라도 여러분은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두뇌가 여러분이 성불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두뇌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네가 성인이라고? 웃기지 마!”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지요.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면 무슨 부처가 된들 소용이 없습니다. 또 그런 부처가 되어 무슨 일

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최고의 경지에 걸맞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자신을 잘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 두뇌는 승복하지 않고 우리가 자길 속이고 있다고 생각해 우리를 못 올라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방해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계속 수행하면서 두뇌를 완전히 씻어내 우리가 현재 달라졌으며 정말 부처에 걸맞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뇌가 흔쾌히 그런 상태를 받아들여야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황금시대의 새로운 삶

수행은 바로 이 두뇌를 고쳐 가는 과정입니다. 세 세생 동안 두뇌는 너무나 많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을 기록하고 우리를 죄의식에 가둬 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뇌를 훈련시켜 고치고 매일 빛을 쬌어 주고 교육시켜야 하며 우리 몸의 모든 세포를 밝게 비춰야 합니다.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속에는 세세생 겪은 좋고 나쁜 인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상이 바로 업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힐끗 보거나 여러분 몸을 보고서 바로 전생에 무엇을 했는지, 혹은 이생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모든 세포, 모든 신체의 진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생각과 욕망을 모두 분명하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린 그 누구도 속일 수 없습니다.

죽어서 염라대왕을 만나면 마치 TV를 보는 것처럼 분명하면서도 매우 빠르고 가볍게 평생의 삶을 보여 주는 거울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녹화' 기능이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누가 누구인지, 전생에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개인의 업장은 우리 몸과 두뇌, 혹은 우리 주변의 기운에 써 있습니다.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누구나 그런 오오라를 가지고 있지만 수행을 할수록 이 오오라는 없어집니다.

## 항상 스승을 기억하여 보호력을 계발하라

우리가 사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때는 반드시 그런 분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수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수행을 오래 했다고 해서 보호력이 강해진다고는 생각지 마십시오.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의 민감도는 수백 수천 배로 증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고통스럽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그는 끔찍하리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어요. 그의

몸은 보통 사람의 몸과는 달리 아주 민감해져서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변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가엾고 불행하며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우리가 하는 좋은 일, 나쁜 일, 악한 일, 착한 일, 그 모든 것은 우리 몸에 붙어 아주 뚜렷이 기록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비밀스런 법문을 알기만 한다면 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때로 그들의 오오라에 오염되는 일을 피할 수 없기도 합니다. 우리의 축복이 그들의 몸으로 날아갑니다. 그들이 그것을 원치 않아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이 가득 든 두 개의 파이프나 물통 중 하나가 높고 하나가 낮으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자신을 보호하려면 파이프를 막아야 합니다. 즉 끊임없이 오불을 외워야 하지요.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물이 썰 때도 있습니다. 스승이 항상 그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도움을 청한다면 바로 응답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부주의해서 그런 거라면 당연히 구하겠지만, 그 일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나쁜 일을 하려고 하고 나의 개입을 거부한다면 나는 여러분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때는 나를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계속 밑으로 가라앉을 겁니다. 나를 잊는 건 괜찮지만 나를 거부하지는 마십시오. 자신이 위대하고 그 어떤 문제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재미로 있는 곳이 아닙니다. 긍정의 힘과 부정의 힘은 별 차이가 없으며 대등합니다. 이 힘들은 우주의 힘으로서 누구에게든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요. 그러므로 마(魔)의 힘도 매우 강력합니다. 그건 우리가 갖고 놀 수 있는 게 아니며 재미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갖고 놀아서는 안 됩니다.



# 황금시대의 새로운 삶



## 여래(如來)의 경지

침하이 무상사/ 1991. 8. 11.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비디오테이프 No. 187b

갑작스런 재난이나 업장을 만나면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올바르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가 제자들에게 매일 뭔가를 갑자기 시킨다는 말을 들어 봤을 겁니다. 갑작스런 것도 괜찮습니다. 업장도 갑자기 오니까요. 그렇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그런 진동력에 습관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깨달은 스승이 되었을 때 천상과 지옥을 그 즉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계속 지옥과 천상에 가야 할지 말지 생각하고 있으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빨라진다면 나중에는 쉽사리 무소부재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왔다갔다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오고 감이 없는 것 같지요.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세계의 시공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서로 다른 지역과 공간을 연결해서 이곳과 저곳이 같아집니다. 이는 마치 개미가 종이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으로 기어갈 때 우리가 그 종이를 말아 버리면 개미가 한 걸음에 건너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공간도 그와 똑같습니다. 단지 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지요.

무술도 그렇고, 무엇을 배우든 그 나름의 비법이 있습니다. 노력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와 마찬가지로 불보살에겐 불보살 나름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을 매우 빨리 하며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래(如來)’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의 움직임도 없다는 거지요. 그들은 여여부동하지만 그 어떤 일도 해내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어느 곳이든 존재할 수 있으며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神通이며, 이것이 바로 가장 높은 수행의 등급인 것입니다. 애쓸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은 스승의 화신이 어디어디에 나타났나, 이런저런 일을 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을 구했다고 말하지만, 나는 사실 어디에도 간 적이 없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 다. 또 어떤 무드라도 취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거기 내 곁에 있었던 출가 제자들, 내가 언제 무슨 주문을 외우거나 무드라를 취하는 걸 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아마 그 시간에 나는 잠을 자거나 악기를 연주했을 겁니다. 혹은 장기를 두거나 시를 읊고 노래를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잔디를 심거나 누군가를 바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지요. 그건 아무 노력도 필요치 않습니다.

태극권의 고수인 그 사형처럼 말입니다. 그는 힘들이지 않고도 누군가 그를 건드리면 상대방 스스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를 건드리기만 하는데도요. 그 사형



# 황금시대의 새로운 삶

은 손 하나 까딱하지도 않는데 누군가 잘못해서 그를 건드리면 자기 혼자 넘어집니다. 이렇게 무공이 높은 사람들은 손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용을 쓰며 이리저리 발길질을 하고 다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을 만나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무술의 달인은 거의 힘을 쓰지 않지만 상대방은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이 우주에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힘이 없을수록, 무형일수록, 형상이 없을수록, 부드러울수록 힘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공기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낙숫물이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걸 알 겁니다. 물방울이 오래도록 떨어질수록 구멍도 깊어집니다. '기(氣)'는 온몸과 온 우주를 키워 내고 유지시킵니다. 이 무형의 기, 관음의 진동력은 그보다 더 불가사의하며,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우주의 어머니로서 만물을 낳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머쥔다면 우주의 모든 비밀이 우리 손안에 있는 겁니다. 어머니를

얻으면 아이도 얻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온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됩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지요. 옛날에 전쟁을 할 때 장군이 죽으면 전군이 머리 없는 뱀처럼 완전히 혼란에 빠져 쉽게 전쟁에 패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경전마다 우주의 진동력, 소리, 다시 말해서 도(道), 근원의 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손안에 넣으면 모든 것을 얻는 셈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 다른 것을 얻는다면, 예를 들어 신통이나 총명함 같은 것을 얻는다면 오직 작은 일부분, 그 한 모퉁이만 얻는 것이지 그 머리를 얻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나 어떤 존재든 머리가 잡히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음법문이 최고이고 가장 근원적이며 가장 빠르고 가장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나은 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 결론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법문을 얻을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또한 여러분도 그것을 얻었으니 우린 정말 운이 좋은 거지요!



골라 보는 수행문답

## 채식은 심신을 가볍게 하고 재앙을 방지한다

청하이 무상사/ 1989. 11. 4.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102b



질문: 대중이 겪는 고통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람들은 전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을 받

는 건가요?



# 황금시대의 새로운 삶

스승님: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 누구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모두 배움의 과정이고 배움은 매우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일단 깨닫고 나면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게 되고 모든 게 공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백년짜리 수명을 가진 이 육신을 유지하기 위해 날마다 저지르는 무수한 살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위해 물고기, 새우, 닭, 돼지, 소 등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희생됩니까? 이 모든 살생의 에너지가 전쟁이나 재앙, 질병을 겪지 않고 해소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천지간에 기록됩니다. 다른 에너지에 희석되거나 다른 행동으로 균형이 맞춰지는 것뿐이지 결코 사라지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증기는 물의 형태를 거쳐 얼음이 되는데 그 얼음을 없애고자 하면 얼음에 햇빛이나 등불, 불꽃을 쬌거나 가열해 다시 기체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줄곧 살생과 대학살을 자행해 왔다면 그 고통을 받은 모든 동물들이 가진 의식, 사고, 증오의 에너지 등 모든 미움과 두려움의 기운이 한데 모여 강력

한 에너지를 형성해 대기 중을 떠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면 큰 재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우주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모두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스승들마다 채식하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식물이 대가가 가장 적으니까요. 동물에게 생명이 있듯이 식물도 생명이 있지만 그 대가는 가장 적습니다. 100달러밖에 못 벌면서 200달러를 쓰고 싶어하면 당연히 빚을 지고 곤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과일과 견과류, 우유, 치즈 같은 것들은 비교적 업장이 적고 그 속에 든 의식도 매우 낮습니다. 젖소에서 우유를 얻는다고 해서 젖소가 죽나요? 또 나무에서 견과를 좀 따더라도 나무에는 매달려 있는 열매가 많아서 수천 그루의 나무로 다시 자랄 수 있습니다. 결코 죽는 게 아니지요. 꽃이나 채소의 가치를 자르더라도 잘린 줄기에서 더 많은 채소가 자라납니다. 그러니 이런 점을 보면 채식하는 것이 해가 적고 대가도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명상을 통해 업장을 씻어내라

칭하이 무상사/ 1993. 4. 10. 미국 콜로라도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50

질문: 고통과 질병은 현세 업장의 과보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업장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스승님: 업장을 견뎌 냄으로써 씻어낼 수 있습니다. 윤회의 바퀴를 돌리기엔 이미 때가 늦었기 때문입

니다.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 업장을 최소화하고 순탄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깨달은 스승에게 입문을 하고 인도를 받아 매일 신의 완전함을 명상한다면 많은 좋지 못한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은 일종의 경고이기도 하다

청하이 무상사/ 1993. 4. 14. 미국 워싱턴 조지아타운 대학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352

질문: 말라리아나 에이즈 같은 전염병이 존재하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질병의 치료법을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겁니까?

스승님: 이런 질병들에 대한 치료법을 발견한다 해도 또 다른 병이 나타날 겁니다. 인간이 신, 우리

내면의 전능한 힘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알고,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우리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힘에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모든 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모든 병들은 우리에게 신께 귀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경고인 것입니다.



## 대변화는 고양될 수 있는 계기다

청하이 무상사/ 1999. 6. 5.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648

질문: 스승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198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지구 전반에 걸쳐 좀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승님: 예. 이것은 일종의 고양입니다.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한데 모이거나 한 시기에 응집되면 보

통 때보다 그 재촉하는 힘이 더 커집니다. 특히 이 세계가 불안정하고 분쟁과 소요, 재난이 많이 일어나는 때 일수록 신의 은총이 더욱 절박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는 신의 은총을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실하게 기도할수록 신은 더 많은 은총을 이 세상에 내려 주실 것입니다.





## 내면의 면역력을 활성화시켜라

청하이 무상사/ 1989. 10. 13.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01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질병은 육식에서 비롯됩니다. 사람들이 동물에게 항생제를 먹이면 동물이 죽을 때 원한에 찬 독소를 뱉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온갖 항생제를 먹은 탓에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잃게 됩니다. 원래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데도 항생제가 너무 많이 배어 있는 고기를 먹어서 몸이 약해지고 면역 체계가 고장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질병이나 우리 몸을 침범해 생명을 앗아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나 부처에게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기도 외에 명상을 하고 도덕적이고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커지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

음법문을 함께 수행하면서 내면의 신의 가르침에 귀기울이고 천안(天眼)으로 신의 지혜를 관하고 채식과 도덕적인 생활을 한다면 어떠한 병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동수들 중에는 하룻밤 새에 병이 완쾌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통은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위험한 병이었는데도 어떤 이들은 도덕적인 삶에서 얻어지는 힘과 신의 보호력으로 인해 사경에서 벗어납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이 내면의 힘을 연다면 불성, 내면의 부처, 내면의 신이라고 하는 그 힘이 우리를 하루 24시간 내내 보호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 몸을 떠난 후에도 계속 보호해 줄 것입니다.

## 우리는 사실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청하이 무상사/ 1994. 9. 29. 싱가포르 단체명상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446

현재 온갖 질병과 질환으로 인해 일년에 약 1천 8백만 명이 사망하는데, 이는 신이 주신 이 귀중한 몸을 소중하게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이 우리에게

이 육신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우리 자신의 전능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담배와 술을 많이 하는



데다 지나치게 육식을 함으로써 고기에 든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도록 하는 등 우리 몸에 치명적인 온갖 일들을 해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좀더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몸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사실 우리는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입맛에도 맞고 몸에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되 적당량만 먹는다면 당연히 우리 건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채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중: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입문을 하고 채식을 시작한 후 훨씬 더 건강해졌잖아요? (대중: 그렇습니다.) 실제로 병원엔 육식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중 웃음) 이것만

봐도 채식엔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되지요.

채식은 그 자체로 건강할 뿐 아니라 채소의 진동력은 우리 몸에도 매우 조화롭습니다. 반면 동물의 진동력은 조화롭지도 못할뿐더러 그다지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정말이지 단순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건 아주 쉽습니다. 약이나 주사도 별 필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 독물을 집어넣어 스스로를 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한 삶,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에게 정말 의사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면 의사도 쉬는 날을 더 많이 갖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의사와 우리 모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채식을 하면 더 건강해진다

청하이 무상사/ 1991. 3. 9. 미국 콜로라도 보울더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159

요즘에도 소위 의사라는 사람들 중에는 낡은 이론에 빠져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을 인용한 수많은 책들을 보면, 많은 의사들이 동물성 단백질은 해롭고 독소가 있어 인체에 나쁘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무수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이론만 듣고 거기에 빠져선 안 됩니다. 우리는 육식을 할 필요

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필요치 않아요! 실제로 채식을 시작한 후 병이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의견에도 귀기울일 만한 용기를 가져 보십시오! 우리는 한 가지 이론의 최면에 걸려 그 이론만 믿고 우리에게 고기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 부처와 마는 한 생각에 달렸다

칭하이 무상사/ 1996. 6. 13. 태국 방콕  
(원문 영어) 비디오테이프 No. 553

콜레라 신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콜레라가 명상 수행자를 지나쳐 가면서 말했습니다. “안녕! 중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러자 수행자가 말했지요. “아, 또 말썽을 일으키러 가는구나!” 콜레라는 그냥 미소만 지으며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중국에서 돌아온 콜레라가 다시 그 수행자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안녕! 나 돌아왔어.” 그러자 아마도 관음법문 수행자였을 그가 물었지요. “야! 너 한 달 사이에 5만 명을 죽였다면서?” “아니, 그건 아니야! 내가 죽인 건 2만 5천 명뿐이라고!” 콜레라 신은 그러고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머지 2만 5천 명은 무서워서 죽은 거야. 난 건드리지도 않았어.”

그러므로 때론 실제 상황이 우리의 상상만큼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닥쳐 보면 그리 나쁘지 않지요. 단지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도망갔을 때 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들 부처의 다음 말을 들어 봤을 겁니다. “나는 부처다. 너희도 부처가 될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데 뭐가 다른 거지요? 왜 우리는 부처가 아닌 걸까요? 그건 우리가 부처처럼 생각하지 않고 부처처럼 일하지 않으며 부처처럼 행동하지 않고 부처처럼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산에도 집착하지 않았지요. 사람들이 그에게 황금 발우를 공양하고 아름다운 비단 옷을 주었겠지만 그는 그것을 받거나 걸쳐도 전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느라 자신의 삶과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자기 시간을 사람들을 깨우치는 데 쓰고 또 인간으로서, 부처로서 고귀한 모범을 보이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항상 마음과 생각을 부처, 가장 높은 이상, 인류와 우주의 가장 고귀한 목적에 두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부정적인 힘’인 마야까지도 그에게 절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지금 부정적인 마야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지요. 그게 차이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안겨 주며 우리의 존엄성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쁜 영화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



입니다. 귀신 영화를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당이나 영매 같은 사람을 찾아가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 저기 귀신이 그의 몸으로 들어가네.” 하는 말을 믿게 됩니다. 그러고는 집에 돌아와 생각하지요. ‘그 귀신이 나를 따라왔을지도 몰라.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했나 봐.’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건 느낌일 뿐입니다. 진짜가 아니지요. 두려움이나 집착은 때로 우리가 원래는 할 수 있었을 많은 일들을 하지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그토록 두려워하거나 안락하고 편한 삶에 집착하지 않았다면 할 수 있는 일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니 항상 부처를 생각하는 데 집중하고 귀신은 생각지도 마십시오.



# 애완견용 채식 사료 정식 출시!

포모사 타이난 보도

타이난 시 동물 방역소가 지난 수개월 간의 노력 끝에 채식 사료 배합법을 성공적으로 개발, 현재 공정과 시험 단계에 들어갔다.

4월 16일 진행된 애완견용 채식 사료 발표회에서 쉬티엔차이 타이난 시장은 이 혁신적인 제품에 대해 반가움을 표하며 포모사 전역에 이 제품이 보급되어 개들이 보다 건강하고 장수하기를 바랐다. 또한 이 일이 다른 많은 중생들에 대한 큰 희망과 보살핌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방역소 측에 따르면 많은 채식주의자들이 개 키우기를 주저하는 이유가 개들에게 주인과 똑같이 채식을 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니, 만일 개가 주인처럼 채식을 할 수 있다면 인간과 개 모두 영혼의 순수함과 평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방역소에서는 이 채식 사료가 떠돌이 개의 입맛과 그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시험 평가하고 있는데, 이 연구는 곧 집에서 키우는 개에 대한 영향과 성과로도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타이난 동물 방역소에서는 관심 있는 사람들의 문의를 환영합니다.

연락처: 전화 06-2130958 (애완동물 관리과)

E-mail: chou.chuan@msa.hinet.net

adc@mail3.tncg.gov.tw

전세계 채식 식당 

## ♠ 영국 런던 ♠

### Joi Cafe

채식 냉동 식품 판매 겸업

주소: 14 Percy Street (off Tottenham Court Road), London W1, U. K.

전화: 020-7323-0981

### Thai Veg

13 Islington High Street, London N1 (Angel Tube stn), U. K.

전화: 020-7837-7767

### Thai Veg

271 Muswell Hill Broadway, London N10, U. K.

전화: 020-8442-0558

### Wai

32 Goodge Street, London W1, U. K.

### VegVeg

6 Kentish Town Road, London NW1, U. K.

### CTV

채식 냉동 식품 판매 겸업

22 Golders Green Road, London NW11 8LL, U. K.

전화: 020-8201-8001

### Tai

10 Greek Street, Soho W1, U. K.

전화: 020-7287-3730

### Tai Veg

81 Kentish Town Road, London NW1, U. K.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전세계 채식 식당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veg.html>





만물을 키우는 봄날의 비바람

## 깨달은 스승의 모범을 따르는 상담 교사

타이베이 우수 교사상 수상자  
북일여고 양스루이(楊世瑞) 사저와의 단독 인터뷰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보도



교사 경력 21년의 타이베이 북일여고 교무주임 양스루이 사저는 영성 추구하고 실천을 통해서 직업과 가정 생활의 참된 의미를 구현해 왔다. 지난 2002년 스승의 날, 지도 및 특수 교육 부문에서 '타이베이 시 우수 교사상'의 영예를 안게 된 전국 명문 고등학교의 이 우수 교사는 어디에서 수행과 세속의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얻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가진 양 사저와의 특별 인터뷰에서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독자들과 함께 나눴다.

### 교육자로서 20년, 축복을 감사히 여기는 정신



“군자가 취해야 하는 교육 방법에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때에 맞는 비처럼 가장 좋은 기회를 잡아 혼화시킨다. 둘째, 학생의 개성에 맞춰 그 덕성을 완전하게 만든다...” 『맹자』에 나오는 이 명구는 북일여고 교무주임인 양 사저가 신봉하는 교육 철학이기도 하다. 그녀는 학생들의 요구와 적성을 토대로 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상담과 지도를 통해 우수 교사상을 수상하며 마잉치우 타이베이 시장(사진)으로부터 표창을 받게 되었다. 이 특별한 영예에 대해 양 교무주임은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교사의 직분은 제게 있어 최고의 영광이자 기쁨입니다. 그 일로 상을 받는 것은 ‘덤으로 받는 상’인 셈이지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양 주임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이해함으로써 정과 신뢰가 넘치는 사제지간의 관계를 확립해 왔다. “1학년 때 양 선생님이 저희 진로 상담을 맡으셨는데 그때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선생님은 언제나 상냥하게 미소 짓고 계셔서 뽀는 순간 달려가 ‘안녕하세요, 양 선생님!’ 하고 큰소리로 인사하고 싶어진답니다. 선생님이 항상 저희 입장에 서서 저희를 이해하신다는 걸 느끼기 때 문이지요.” 북일여고 2학년 학생의 말이다. 교사와 학생 간의 이러한 격의 없고 진실한 관계는 사



실 양 주임의 수행과 성장에 밑바탕을 둔 것으로서, 그녀는 수행으로 얻은 통찰력을 상담에서 심분 발휘하고 있다.

## 영적 은사로부터 얻은 깨달음



양 주임은 어렸을 때부터 진리를 갈망해 왔다. “저는 종종 하느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정말 존재할까? 왜 내 마음은 계속 공허할까? 저는 늘 이런 질문에 대해 답해 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양 주임은 또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저는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자랐고 주일학교에 가서 찬송가 부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아주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저 자신이 거기서 별다른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음이 계속 공허했지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역사를 공부하면서 불교와 선종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되었는데, 그때 또 다른 의문이 생기더군요. ‘왜 불교와 기독교는 서로 수용할 수 없는가?’ 그러다 학생 상담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지난 후 우연한 기회에 청하이 무상사의 강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강연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고 서로 다른 종교들이 원래 그 근원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하이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에 깊은 감명도 받았고요. 그때부터 수행을 시작해 이제 14년이 되었습니다.”

교사를 천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양 주임은 청하이 무상사의 무아의 헌신과 지고한 자비심에 대해 남다른 이해와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양 주임은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스승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스승님은 스승이 되신 후로 토요일, 일요일을 가져 보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스승님은 보통 교사들보다 훨씬 더 많고 광범위하며 각기 다른 제자들을 대해야 하는데, 그 요구들을 만족시키려면 스승님 개인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스승님은 눈에 보이는 강연이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식적인 면에서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모범과 실천을 통해 가르침을 주시고 각자의 요구에 맞춰 각기 다른 관심과 사랑을 주십니다. 이걸 다른 교사들은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스승님의 세심하고 부드러운 보살핌과 지혜의 말씀은 그 어떤 교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스승님은 최대의 사랑으로써 각 제자들을 대하십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말씀을 통한 지도든 영적인 깨우침이든 가장 훌륭합니다. 그 무아의 희생과 헌신의 정신은 참으로 대단하지요!”

“언젠가 강연을 끝내신 스승님이 청중들을 향해 아주 간곡하게 하시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나는 지금 떠납니다. 여러분이 불교 신자라면 계속 행복한 불교 신자가 되십시오. 기독교 인이어도 역시나 행복한 기독교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때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님의 그 관대하고 사심 없는 마음은 보통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스승님이 진심으로 청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 수행으로 일깨워진 잠재력을 통해 적극적이고 낙천적으로 일해 나가다



양 주임은 수행을 통해 교육관을 넓혔고 정신적 만족감과 사랑을 일에 적용시켰다. 명상을 시작한 후 상담 일에 있어서 경험한 변화에 대해 양 사저는 이렇게 말했다. “수행을 하기 전까지 전 평범한 상담 교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전 이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심리학과 지도 부문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응용, 발휘해 봤는데, 스승님을 따라 수행을 시작한 후로는 심리학에 대해 더 깊이 체득하고 이해하게 되었으며, 이 지식을 일에 보다 잘 발휘하고 더 많은 상담술을 보다 적절히 응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랑과 인내심도 더 많아졌어요. 수행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얻어 일을 더 잘해 낼 수 있게 되었죠!”

칭하이 무상사에게 입문한 후 양 주임은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지고 어떻게 바쁜 일에서 생기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에 대해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스승님은 이전에 말씀하시길 입문한 그날부터 신과 연결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나날을 스승님의 손에 맡기고 배우는 자세로 일하러 가며 그날 제가 무엇을 경험하는지 봅니다.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고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기에 종종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그러나 입문하고 수행을 하고부터는 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닥치는 예측 불허의 일에 대응하고 그 도전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자세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하고 생활도 좀 자연스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지요. 상담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서 보통 심리 상태가 좋지 않은 학생이 상담실을 찾아오면 하던 일을 제쳐놓거나 식사나 쉬는 시간을 건너뛰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그때 약간 심적인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그럴 땐 우리를 위해 온갖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스승님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사소한 불편함은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나 피곤하고 기분이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늘 최고의 교육을 주고 있다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명상을 하는 양 주임은 직업상 겪는 도전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으며, 내면에서 끝없이 흘러나오는 사랑과 지혜만이 학생과 자신 모두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살아가는 가운데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매일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도전을 만날지 모르거든요. 상담 교사로서 저는 이에 대해 더욱 강하게 느낍니다. 우리는 매일 고정된 수업 시간에만 똑같은 학생들을 대하는 여타 교사들과는 다르니까요. 학생들과 상담 약속을 잡아 놓긴 해도 그들이 어떤 심리적 경험을 드러낼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생들의 경우는 그날 왜 갑자기 나타났는지 모를 때도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충분한 사랑과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그들과 좋은 상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저의 20대, 30대를 돌이켜보면 정말 모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편안합니다. 매일 신, 대자연의 힘과 소통하고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도(道)’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일을 하든 이 위대한 힘이 우릴 지지해 주고 함께하며 최상의 인도를 제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 미래의 주역들에 대한 기대



현대 사회의 가치관의 혼돈이 젊은이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따라야 할 것인지 고민한다. 이에 대해 양 주임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별로 없고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 사회적 가치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로서는 자기만의 자아를 찾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요! 우리는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쉽게 찾아내길 바랍니다. 저는 종종 그들에게 긍정적인 책이나 좋은 영화를 보면서 이 시기에 지나친 슬픔이나 폭력,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도록 독려합니다. 이런 영향들은 그들의 사고방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만일 학생들이 가정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종교를 가짐으로써 대자연을 믿을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어떤 훌륭한 높은 힘을 통해 인도를 받고 자신들이 항상 ‘도’ 안에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면 훨씬 쉽게 긍정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수행은 가정 생활에 도움을 준다



성공적인 직업 여성은 가정 생활도 행복한 법이다. 양 주임의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들 부부간의 존경과 지원, 부모와 자식 사이에 흐르는 격려와 가르침을 느낄 수 있었다. “남편과 저는 원래부터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수행을 하고 나선 사랑이 더 깊어졌지요. 우리는 서로 잘못할 것이 없는 막역한 친구와 같습니다. 이렇게 함께 수행하며 서로 돕고 격려할 수 있는 좋은 영적 동반자를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입문한 후로 더욱더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아이들의 성적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는 많은 부모들과 달리 우리는 좀더 유연하게 아이를 대할 수 있게 됐지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채식과 수행을 해 온 이 집의 십대 ‘작은 사형’은 ‘선생님 어머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가장 좋은 점은 엄마가 저를 친구처럼 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걸 모두 터놓고 얘기하거든요. 그냥 단순한 모자 관계가 아니지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속속들이 아는 친구 사이 같습니다.” 집에서 가장 행복을 느끼는 점은 뭐냐고 묻자 그는 주저 없이 말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세련된 엄마가 있다는 거죠!”

## ..... 맺음말 .....

양 사저는 칭하이 스승님의 완벽한 모범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얻어 교육과 가정 생활에 적용, 실천해 왔다. 지난 수년 동안 얻은 이 심오한 영적 깨달음으로 인해 수시로 마음속에 감사함이 가





득 차곤 한다. 오랫동안 뵙지 못한 스승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님이 너무나 그림고, 예전처럼 스승님을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더 많아지길 바라지요. 하지만 스승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신 것처럼 그 돌보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 언제나 스승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양 사저에게 한층 안전하고 굳건한 마음을 심어 주었다. 수행을 통해 얻은 지혜와 사랑은 삶과 일에서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 보다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인터뷰는 썬 TV ‘예술과 영성’ 프로그램 제34, 35편에 방송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hichannel/index.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중국어, 영어 자막 지원)



## 격리를 안거로 삼다

리위에 사저/ 포모사 까오슝

“만일 당신이 정말 ‘운 좋게도’ 격리되면 밥은 내가 갖다 줄 테니 걱정 말아요!” 농담처럼 한 이 말이 생각지도 않은 사스 발생으로 현실화되고 말았다! 어떤 병원에서 일하는 동수들이 사스로 인해 격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많은 동수들은 솔선해서 다방면으로 최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힘껏 노력했다. 스승님의 은총 덕분에 우리는 실용품과 축복 음식, 음료수 등을 간호사들에게 순조롭게 전달할 수 있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소리 없이 진행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느 수행 단체 소속이기에 이처럼 용감하게 들어왔나요?” 하고 자꾸만 물어서 우리가 칭하이 무상사의 수행 단체란 게 알려지게 되었다. 얘기를 들은 간호사들은 매우 감동하며 스승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말 절묘했던 것은 우리가 기증한 물건의 양과 간호사들이 원한 양이 꼭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스승님의 사랑과 은총은 언제나 이처럼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동수들은 곤경과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최대한 낙천적으로 받아들이며 서로 농담을 주고받길 좋아한다. 그래서 사스로 인해 이런 상황을 겪게 되었어도 동수들은 이를 병원에서 ‘안거’ 중인 사형사저들에게 도움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매우 영광스런 기회로 생각했다. 수행자들의 시각은 일반인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격리’도 수행을 위한 ‘안거’로 여긴다. 이 안거 중에는 감히 누구도 방해하러 올 수 없고 여러분 또한 마음대로 밖에 나갈 수 없다. 그동안 우리는 전국 각지의 동수들이 한데 합심하여 헌신적인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보면서 실로 큰 감동을 받았다. 비록 이런 모습이 수행자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긴 하지만 스승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새롭게 생각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엄마’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 마음속의 스승님과 함께 사스(SARS)와 싸우다

-한 백의천사의 증언



장쉬홍 시저/ 홍콩 (원문 중국어)

나는 2003년 2월 9일 입문한 홍콩 동수로 홍콩의 큰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입문한 지 한 달 후 홍콩은 사스 때문에 역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이 사태는 내게 인생의 가치와 간호사의 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감사의 마음도 가르쳐 주었다. 무엇보다도 나는 스승님의 가피를 몸소 체험하며 그 광대한 힘을 목격할 수 있었다.

사스 사태가 터졌을 때 나는 동료들이 한 사람씩 사스에 감염되는 것을 보며 마음이 괴로웠다. 여태껏 간호사로 20년간 근무하면서 이 일 때문에 죽음의 위험에 처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기껏해야 환자를 최대한 잘 보살피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어서 회복되길 기도하는 일뿐이었다. 사스가 가장 기승을 부리던 무렵에는 병원의 의료진들 모두 제비뽑기로 순서를 정해 이 ‘전장’에서 쓰러졌거나 기운이 소진돼 계속 일할 수 없는 사람들 대신 사스 병동에서 일할 사람을 재배치해야 했다. 하지만 사스에 대항해 힘겨운 전투를 치르는 와중에도 내 마음속엔 두려움이라곤 털끝만큼도 없었다. 스승님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무사하고 안전하리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게 중생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이 ‘백의의 천사’ 일을 주신 신께 정말 감사했다. 사람들이 관심과 보살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이 일을 통해 그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많은 의료진들이 사스에 감염되고 동료들의 사기도 떨어졌을 때 나는 스승님께 우리 모두가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기

도드렸다. 그랬더니 정말 감사하게도 4월 초 의료진을 위한 ‘마음을 키우는 방’이란 공간이 생겼다! 그 내부에는 많은 영성 서적과 음악이 비치돼 있었고 또 ‘고요의 별관’이란 명상을 위한 공간도 있었다. 이 번잡하고 부산한 홍콩에서, 그것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병원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살찌울 작은 ‘정토(淨土)’가 생기다니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었다!

또한 채식의 이로움을 알고 있던 나는 이 투쟁의 기간 동안 의료진들이 채식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스승님께 기도드리고, 이를 위해서 병원 관리 위원회 측에 의료진을 위해 채식 메뉴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 스승님의 은총 덕택에 병원 측에서 흔쾌히 내 의견을 받아들여 매 끼니마다 채식 음식이 나왔다. 스승님은 나의 채식을 줄곧 반대하던 열두 살짜리 딸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딸아이가 2주 전 느닷없이 “엄마, 오늘부터 채식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정말 감개무량했고, 스승님의 사랑과 자비로움에 한없는 감사를 드렸다!

스승님의 보살핌과 보호로 인해 홍콩은 마침내 사스와의 전쟁을 끝내게 되었다. 용감하게 싸우다 순직한 병원 의료진들은 신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으로 돌아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입문한 후 석 달 동안 나의 삶은 스승님의 은총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했으니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에 나의 체험과 스승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과 나누고자 한다!



# 포모사 원주민 결혼 박람회

포모사 타이베이 뉴스그룹

‘산(山) 사람, 신(神)의 사람’이란 말은 칭하이 무상사가 포모사의 원주민 친구들을 부르는 애칭이다. 1999년 남아공 순회강연 도중 스승님은 세계에 왜 서로 다른 종족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한 줄루 족의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셨다. “왜냐하면 신은 매우 다채롭고 다재다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다양한 꽃을 만들어 우리 눈을 즐겁게 하시듯 다양한 피부의 사람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에 대해 즐겁게 생각해야 합니다.”



2003년 5월 3일부터 28일까지 제1회 ‘포모사 원주민 결혼 박람회’가 타이베이 국립 장개석 기념관 장개석 갤러리에서 개최되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타이베이 센터도 이 행사에 참여해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과 원주민 어린이들이 그린 천진무구한 채색화 60여 점을 전시했다.



5월 2일 정식 개막식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한 손님은 전시장에 울려 퍼지는 부드럽고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들었다. 당시 아무 음악도 방송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그녀는 자신이 들은 음악이 전에 들은 적이 있던 칭하이 스승님의 노랫소리라고 생각했다. 동수들은 이 얘기를 듣고는 자비로운 화신 스승님이 모두를 축복하러 오신 것이라고 확신했다.



전시회 동안 스승님의 그림을 감상한 한 미술 교사는, 스승님의 그림은 아무 꾸밈이나 덧칠한 흔적도 없이 자연스럽고 순진하고 질박한 방식으로 의미와 분위기를 전달한다고 얘기했다. 또한 이전에는 매체보도를 통해서나 스승님을 접했기 때문에 스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는데 오늘 새롭게 알게 되어 영광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방문객인 화교 출신의 탄여사는 민족과 피부색, 종교를 가리지 않는 스승님의 사랑에 탄복해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좀더 이해하기 위해 이번에 특별히 방문했다고 한다. 그녀는 안내를 맡은 사자와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서 스승님의 가르침에 깊은 동감과 이해를 나타낸 후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떠났다.

마침 주말이었던 5월 24일에는 원주민 패션쇼와 시상식이 열렸다. 원주민들이 정성스럽고 세심하게 디자인하고 재단한 현대식 의상들은 관중들의 눈을 번쩍 뜨게 만들었으며, 이날 초청을 받은 세 명의 원주민 가수들은 맑고 고운 목소리로 원주민 창작가요를 선사했다. 이어서 원주민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전달됐고, 원주민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온 사람들에게 대한 시상식도 거행됐다.



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이번 박람회에서 참여의 차원을 넘어 원주민 예술 연구 지원, 원주민 우수 어린이들에 대한 장학금 증여, 행사장 장식 및 오디오 설비, 맛있는

채식 요리 제공 등 다방면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었다. 이런 노력들은 장개석 갤러리를 찾은 방문객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었으며, 원주민 친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에서 뿜어 나온 사랑의 빛은 사스(SARS)로 인한 타이베이의 어두운 그림자를 멀리 물리쳤다.

♣ 행사 일화

## 스승님의 예술 작품에 담긴 숨은 뜻



감로병

어느 사회교육대학의 이사인 왕광위 여사는 스승님의 만세등 ‘불 끄는 부채’를 감상할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더니 만세등 ‘보호력’앞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눈물이 펄펄 쏟아져 나왔다. 포모사의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난 왕 여사는 가정과 일 모든 면에서 순탄한 삶을 살고 있지만 이처럼 깊은 영혼의 전율은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동수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것이 스승님의 작품에 깃든 축복으로 인한 것임을 깨달았다.

왕 여사는 스승님의 예술 작품을 보며 하나하나 감상을 달았다. ‘천당화’는 정말 진선미를 상징한 꽃으로서 삶의 아름다운 면을 보여 주며, 작품 속에 담긴 경외로운 힘은 자신의 이해력을 뛰어넘는다고 했다. 또 ‘마음속의 꽃은 시들지 않는다’는 법열의 최고 상태를 표현한 것이고, ‘갈망’은 일종의 영적 고양감을 불러일으켜 마치 스승님이 자신을 최고 경지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듯해 그 깊고 깊은 내면의 감동은 말로 형언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왕 여사는 ‘동굴’을 통해 인간의 무지와 혼란을 말끔히 씻어내는 영혼의 창을 봤으며, 만세등 ‘감로병’은 만물을 품고 키워 내는 대지의 어머니를 은유하고 있는 매우 창의력이 넘치는 걸작이라며 이 작품에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영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왕광위 여사는 짧은 시간 안에 작품 속에 담긴 의미를 깨우쳐 주시고 영혼을 고양시켜 주신 것에 대해 스승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그녀와 같이 온 친구는 왕 여사가 세속에 물들지 않은 영혼의 소유자로서 항상 신실하고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스승님과 잘 통하고 그 사랑과 강력한 자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얘기했다.



동굴





# 스승님의 그림을 통해 얻은 신심

## -불신을 딛고 이해로 나아가기까지

중국 본토, 예비 입문자

아내와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 온 사이로 우리 가정은 친구와 이웃들로부터 선망을 받아 왔다. 그러나 몇 년 전 아내가 『즉각 깨닫는 열쇠』라는 책자를 한 사저로부터 받고 난 이후 우리 생활은 바뀌기 시작하였다. 아내는 그 책을 읽은 후 스승님을 따라 수행하기로 마음을 냈고 나도 같이 수행하길 희망했다. 당시 스승님의 가르침을 일부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나는 물질주의자였기 때문에 영혼과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고 수행과 채식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었던 내가 봤을 때는 채식을 하면 친지나 친구들과 교제가 끊어질 것 같았다. 이건 생활 원칙상의 문제였다. 이에 우리 부부는 결혼 이후 최대의 불화를 겪게 되었다.

아내의 입문을 막기 위해 나는 온갖 방법을 궁리하였다. 수만 인민폐를 써 가며 아내를 데리고 각 지방으로 관광을 다녀 보기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나는 어쩔 수 없이 아내가 방편법만 수행하는 것으로 타협을 봤다. 그렇게 해서 아내는 첫 번째 입문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 하지만 아내가 방편법을 수행하면서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입문에 대한 갈망이 더욱 커질 것이라곤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그녀의 갈망이 강해짐에 따라 우리 두 사람의 갈등도 첨예해졌고, 그동안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통이란 걸 겪어 봤다. 이혼도 생각해 봤지만 아내에게 상처를 줄까 봐, 그리고 아내를 잃을까 봐 두려웠다. 어쨌거나 나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했으니 말이다. 내가 아내의 수행을 방해할수록 그녀도 고통스러워했고,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보면 내 마음속에선 미움이 가득해졌다. 관음법문에 대한 아내의 집착이 미웠고 책을 전해 준 사저도 미웠다. 나는 우리 부부가 불화를 겪게 된 게 다 그녀 탓이라고 생각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 아내의 수행을 막아 봤지만 결국 아내는 나 모르게 한국에 가서 입문을 해 버렸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당시 내 모습은 정말 웃기는 것이었다. 일개 범부가 부처의 힘을 막아 내려 하다니, 마치 벌레 한 마리가 차를 멈추려는 것과 뭐가 다르겠는가! 아내가 한국에서 돌아오자 오히려 내 마음은 평온해졌고 나의 지난 행위를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내와 함께 채식을 하고 술도 끊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스승님의 위대한 사랑의 힘 덕택이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아내와 함께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러다 2002년 6월 아내가 ‘동굴’과 ‘희망’이라는 스승님의 그림을 두 점 구해 왔는데, 그림을 사 온 지 1주일 새에 나는 며칠 간을 계속해서 스승님이 나를 아름다운 세계로 데려가시는 놀라운 꿈을 꾸었다. 가장 잊을 수 없었던 것은 스승님이 휘황찬란한 홀로 데리고 가신 꿈이었다. 그곳엔 천장은 보이지 않고 기둥만 있었는데, 사방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찬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스승님은 나와 오랜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누시며 “마음을 열고 집착하지 마세요.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나는 너무나도 기뻐다. 스승님은 나를 이해하시고 자유를 주셨던 것이다.

그리고서 며칠 후 다시 꿈을 꾸었을 때 스승님은 나를 데리고 우주의 블랙홀을 통과하셨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별들이 반짝이며 우리 앞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가 별들보다 수십 배나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았다. 블랙홀의 중앙을 통과할 때 ‘동굴’에서 보았던 빛이 보이더니 다음 순간엔 그보다 더 눈부신 흰빛이 이어졌다. 당시의 그 느낌을 말로는 뭐라 표현할 길이



었다.

이때부터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열심히 진지하게 공부하기 시작한 나는 스승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이로써 나는 방편법을 수행하기 시작했는데, 명상할 때 스승님이 종종 온갖 아름다운 경지로 나를 데려가시는 좋은 체험을 하곤 했다. 이제 나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다. 아내에 대해서도 미움이 사

랑으로 바뀌어 우리는 매일 스승님의 가르침을 놓고 토론하곤 한다. 이전보다 더 화목한 가정을 주신 스승님께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린다. 스승님의 그림은 나에게 힘과 지혜를 가져다주었고 나의 마음을 불신에서 믿음으로 완전히 바꿔 놓았다. 나는 이제 스승님의 힘이 무소부재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알고 있다! 하루 속히 스승님께 입문하기만을 고대한다.

## 모든 것을 스승님께 맡기다

구술: 판 사형, 필리핀 일로일로 시  
기록: 필리핀 마닐라 센터 뉴스그룹 (원문 어울락어)

많은 어울락인들이 필리핀 난민 캠프에 정착한 지 13년이 되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굴곡과 압박을 받기도 했지만 우리들의 삶은 스승님의 축복으로 인해 원만하고 평화스러웠다. 그런데 2002년 어울락 대통령이 필리핀 대통령을 만나 어울락 난민의 본국 송환 문제를 상의했다는 보도를 본 후로 나는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그런 불안한 상태에서 11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생각났다.

처음으로 필리핀 난민 캠프를 방문하셨을 당시 스승님은 자비롭게도 병원의 환자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며 그들에게 관심이 가장 필요한 때에 위안을 주셨다. 그 중 한 여성 환자는 오랫동안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상태였다. 거의 매일 병원을 다녀야 했던 그녀는 괴로워하며 자신이 죽고 나면 돌볼 사람 없이 남겨질 어린 자식들 때문에 몹시 걱정스러워했다. 이때 스승님은 그녀의 병상 곁으로 오시더니 머리를 만져 주시며 “괜찮을 겁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3년 후 그녀는 병이 재발해 마닐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되었다. 심장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죽은 것처럼 느껴졌던 그녀는 스승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갑자기 눈부신 둥근 빛이 2, 3분간 그녀의 몸을 에워싸더니 잠시 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류가 빠르게 관통하는 게 느껴졌다. 며칠 후 그녀는 건강이 회복돼 병원에서 퇴원했다.

그후 그녀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말하곤 했다. “스승님, 도와주세요. 제 아이들한테 돌봐 줄 사람도 없어요, 스승님!” 그러면 바로 스승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스승님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며 기도할 때마다 선명하고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스승님을 볼 수 있었다. 세 살 된 그녀의 딸아도 스승님의 모습을 보고는 큰소리로 스승님의 화신을 봤다고 외쳤다. 하지만 모녀를 제외한 다른 식구들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체험들이 있고부터 그녀의 삶도 나아지기 시작했다.

이 일을 떠올리고 보니 스승님의 힘이 제자들뿐 아니라 모든 이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더욱 강하게 들었고, 그러면서 내 경우를 생각해 보았다. 나





는 스승님의 제자이니 스승님은 당연히 나의 상황을 아신다.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걱정을 해야 한단 말인가? 스승님께 모든 안배를 맡기기로 결심하자 천근만근 같았던 무거운 짐들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홀가분해졌다. 내일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것이다.

필리핀의 어울락 난민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외견상 우리는 아직 정착을 못 하고 있

는 실정이다. 하지만 나는 그 걱정을 모두 놓아 버렸고,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스승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안배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스승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평온하고 편안해지며, 또한 열심히 수행해 스승님의 사랑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스승님께 최고의 사랑과 존경을 바치며, 스승님께 너무나 그림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다.

## 놀라운 기적

구술: 도안 응우엔 사형, 필리핀 일로일로 시  
기록: 필리핀 마닐라 센터 뉴스그룹 (원문 어울락어)

한 동수가 예비 입문자를 만나러 갔다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일반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오게 되었다. 꽤나 먼 거리였기 때문에 밤새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차에 탄 사람들은 잠이 들었고 운전자도 가물가물 졸음에 빠진 순간 갑자기 엄청나게 큰소리가 들렸고, 이에 깨어난 사람들은 온 몸이 공중에 붕 뜨는 느낌을 받았다. 나중에 보니 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던 것이다. 차가 완전히 부서진 상황에서 차 밑에서 기어 나온 동수는 몸에 상처 하나 없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그는 예비 입문자와 운전자를 차에서 끄집어냈다. 예비 입문자는 팔에 작은 생채기만 난 상태였고 운전자는 15분간 정신을 못 차리다 깨어났는데 가벼운 두통만 있었을 뿐이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교통계 담당 주임과 경찰은 차가 완전히 박살났는데도 세 사람이 멀쩡한 것을 보고는 매우 놀라워했다. 담당 주임은 동수를 껴안으며 신이 세 사람을 보호한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교통계를 담당할 이래 전례가 없었던 이런 기적적인

일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 보험 회사에서는 차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내리고 차주에게 새 차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고가 있기 전 그 동수는 예비 입문자를 방문했을 때 스승님의 사진이 든 목걸이가 한쪽 구석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목에 걸었었다. 사고가 나던 순간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에너지를 느낀 그는 스승님이 매 순간마다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며 사고 순간에 차에 타고 있던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일을 겪은 후 그 동수는 지난날 자신의 수행이 굳건하지 못하고 행동도 조심스럽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워했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도 계속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신 스승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는 더욱 열심히 수행하기로 결심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해탈과 깨달음을 얻도록 계속 수행할 기회를 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렸다. 그 덕분에 이 덧없고 고통스런 삶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 머리가 아프다고요!

청하이 무상사/ 1999. 10. 1.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선생님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찰스야, 넌 왜 그렇게 글자 배우기가 힘든 거니?” 그러자 찰스가 대꾸했지요. “그거야 선생님이 항상 단어를 바꾸시니까 그렇죠!”



## 맘대로 계산법

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어떤 사람이 텍사스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송아지를 한 마리 쳤는데 송아지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운전자는 송아지 주인인 농부를 찾아가 보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운전자가 그 일은 순전히 사고였다면서 송아지 값이 얼마가 나가든 그대로 보상해 주겠다고 하자 농부가 말했습니다. “그 송아지는 지금은 100달러 하지만 6년만 있으면 800달러가 됐을 거요. 그러니 800달러 내시오. 됐소?” 그러자 오토바이 운전자는 800달러짜리 수표를 써 주며 말했습니다. “자, 그 돈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찾으려면 6년을 기다려야겠는데요!”

## 놀러 가는 사람은 누구?

청하이 무상사/ 1999. 10. 6. 미국 플로리다 센터 (원문 영어)

한 남자가 두 친구를 양옆에 끼고 기차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한잔했지요. 술도 좀 걸치다 보니 잠시 후엔 기차 타는 걸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시면서 떠들고 떠들면서 마셔댔습니다. 그러다 기차가 출발한다는 마지막 안내 방송이 나오자 세 사람은 벌떡 일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가운데서 걸었던 남자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뒤에 쳐져 결국 열차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가까스로 기차 맨 뒤의 승무원 칸을 붙잡아 타곤 저 멀리 사라졌고요. 그러자 뒤에 남은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곤 배꼽이 빠져라 웃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쳐다보며 말했지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웃고 계시오? 당신이 기차를 놓쳤다는 걸 알고는 있는 거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예, 알다마दा요. 내가 웃는 건 저 친구들 때문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냥 나를 배웅하러 온 거거든요.”



스승님의 위 농담을 동영상으로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주위 분들과 함께 유쾌한 스승님의 농담을 나누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44/jk1.htm>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news/144/jk1.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net/ch/news/144/jk1.htm> (미국)





## 단순하게 살아가는 생활 방식

평페이 동수/ 인도 재난 구호 작업 팀 (원문 중국어)

평소 세속적인 일들로 종종 애를 태우던 나는 인도로 구호 활동을 떠나기 전까지 내면의 영감을 통해 자유롭고 흥가분한 생활 방식을 찾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생계도 감당하면서 바깥 활동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행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생활 방식을 말이다. 하지만 나는 '필요'와 '욕망'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늘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문제가 인도에서 돌아온 후 쉽사리 해결되었다.

인도에서 우리 팀이 주로 머물렀던 라자스탄은 수년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은 곳으로, 이곳의 많은 지역이 지난 10년 중 7년 동안 가뭄을 겪었고, 4, 5년 동안 줄곧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곳도 수도룩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매우 고되고 단순했지만, 이 견디기 힘든 불별더위 속에서 오히려 '단순하게 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참으로 놀라웠다. 여기서는 너와 나라는 분별이 거의 없는 것 같았고 사회적 지위와 사업적 성공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어쨌거나 여기 사람들은 신분이나 지위에서 별 차이가 없긴 하다.) 이곳 사람들의 가장 큰 기쁨은 작열하는 태양과 높은 기온이 잠잠해지는 저녁을 기다렸다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따뜻한 밀크 티나 음료수를 마시며 밤의 청량함을 함께 즐기는 것이다.

당시 내게 있어 가장 큰 즐거움은 일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간단히 국수 한 그릇을 만들어 먹는 것이었다. 생수와 국수, 야채를 함께 넣고 끓이다가 화화 조미료를 약간 넣은 국수는 기막혔고, 그럼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았다. 전에는 건강을 생각해서 꺼려했던 화화 조미료에 고마운 마음까지 들기 시작했다.

머칠 동안 이렇게 '서바이벌' 훈련을 하고 난 후 나는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을 배울 수 있었다. 생존하기 위해서 나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살아가는 데 어떤 것이 '필수적'이고 어떤 것이 '군더더기'인지도 이해하게 되었다. 내게 있어 전에는 어찌다 우연히 얻어지곤 했던 이런 분별 능력이 포모사로 돌아온 후 이처럼 기적같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지금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인도에서 지냈던 당시를 생각하면 쉽게 해결되었고, 무엇을 취하고 버려야 하는지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인도 여행을 통해 삶의 본질에 대한 지혜안을 열어 주시고 나의 근심거리를 씻어 주신 신께 감사드린다. 이것이 바로 '환골탈태'가 아니겠는가!



# 인도에서 '당신'을 알아 가며

평페이 동수/ 인도 재난 구호 작업 팀 (원문 중국어)

나는 입문하기 전부터 신을 알기를 갈망해 왔는데, 그 생각은 세간의 온갖 기괴한 현상들을 볼 때마다 더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스승님을 알고 나서는 스승님의 무한한 사랑에 대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강렬한 갈망과 더불어 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났다.

이번 재난 구호 활동은 명목상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베풀기 위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우리아말로 가장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플로리다 크리스마스 선 행사에서 내가 스승님께 사랑의 봉사에 대해 질문했을 때 스승님은 큰 인내심을 갖고 답해 주셨다. 스승님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동물을 보살필 때 자기 혼자서 느낄 수 있는 행복과 상대방으로부터 전해 오는 행복감으로 인해 두 배의 행복을 느낀다고 하셨다. 사랑으로 가득한 스승님의 답변을 통해 나는 예전에 두뇌로 일했기 때문에 일이 해도해도 끝이 없고 쉽게 지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는 이해했지만, 센터에서 벌이는 봉사 활동에 대해 백지인 상태에다 직접적이고 단순한 '주고받는' 경험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작은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나 자신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이런 미묘한 느낌과 갈망을 일년 후 스승님의 안내로 인도에 가 있으면서 깨달을 수 있었다.

라자스탄에서 40일간 구호 활동을 하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어려움을 돌파해 가면서 이리저리 바빠 움직이다가 마침내 식량을 굶주린 가뭄 피해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어서 지하 물탱크와 우물들이 완성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또 마지막에는 몇몇 주민들이 관음사자에게 입문을 하기도 했다. 이런 전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정말 신이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완벽하고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체득할 수 있었고, 신의 그 무한한 사랑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비록 이번 활동이 우주의 영원 속에서 보면 한 점 티끌에 불과하겠지만, 나는 사랑의 씨앗이 인도인들의 영혼 깊숙이 뿌려졌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마지막으로 스승님께 내 가장 깊은 감사의 마음을 바치고자 한다.

당신이 계시지 않았다면 나는 신이 존재하는지 몰랐을 겁니다.  
수수께끼 같지만 하던 신은 당신으로 인해 모습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사랑은 만물을 이롭게 하고 만 중생에게 두루 미칩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신이 진실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 인도에서 ~





## 국경 없는 사랑 재난 속에 진실한 마음이 모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세계 각지에서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 세계인을 공포와 근심 속에 몰아넣자 이를 아신 스승님은 즉시 국제협회 회원들에게 긴급 구호 활동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셨다. 이 활동을 펼치는 동안 우리는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 인류에 대한 참된 사랑과 관심으로 다른 이들을 도움으로써 인류의 미래에 무한한 빛과 희망을 전해 주었다.

이 활동과 관련된 신문 보도 및 깨달음이 가득한 스승님의 강연은  
쑤 TV '예술과 영상' 프로그램 제38, 41, 42, 43편에 방영되었다.

인터넷 시청 관련 URL :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hichannel/index.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hichannel/index.htm> (중국어, 영어 자막 지원)



### 인도 소식

#### 인도 북서부 가뭄 구호 및 우물 파기

##### 물질과 영성의 감로수

지난 수년 동안 연달아 가뭄이 든 인도 북서부 지역은 올해 들어 사태가 더 심각해져 농작물도 심지 못하고 물과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아신 칭하이 무상사는 동수들에게 라자스탄 주의 조드푸르, 자이살메르, 팔리, 바메르 등 4개 주요 도시에서 구호 활동을 수행할 것을 지시하셨다.

2003년 4월 말경 영국과 싱가포르, 포모사에서 도착한 40명에 달하는 동수들은 즉시 구호 식량을 대량 구매한 뒤 3개 조로 나뉘어 각 지방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물자를 배분하기 시작했다. 자이살메르에 처음으로 도착한 동수들이 그곳 공무원들과 배분 활동에 대해 논의하고 있을 때 오랫동안 구경도 못했던 비가 1시간 동안 억수같이 쏟아져 모두들 기쁨에 겨워했다! 모임







을 마친 후 공무원들은 기쁜 표정으로 스승님의 책을 들고 사진을 찍었다.  
(왼쪽 사진)

5월 첫째 주  
동안 작업



▲ 기쁜 얼굴로 구호 식량을 받고 있는 라자스탄 주민들.

팀은 각 도시 시장과 적십자, MMBA(Mahila Mandal Barmer Agor) 등의 단체의 도움을 받아 벌써 54도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10,500가구에 대한 물자 배분을 순조롭게 마쳐 일시적이거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조드푸르 시장인 라자드 쿠마르 미쉬라 씨는 이 지역이 수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의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칭하이 무상사의 도움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작업 팀이 철수하기 전 휘장 수여식을 마련했다. 또 아룬 푸로히트 팔리 시장은 이곳 주민들에 대한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들은 후 구호 활동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안내해 주고 작업 팀이 떠날 때는 직접 배웅을 나와 격려하기도 했다.

바메르에서의 구호 활동을 마친 동수들은 이곳 정부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은 지하물탱크 신축과 우물 개축을 못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즉시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MMBA의 지원을 얻어 물탱크 50개를 짓고 우물 스물한 곳을 보강 공사했다. 물탱크는 건기 때에는 물차에서 물을 받아 두고 우기 때에는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다음 우기가 오기 전 이용될 수 있도록 6월 중순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7천 명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수킬로미터씩 사막을 걸어



▲▶ 바메르 주민들은 스승님의 자비로운 도움을 기리기 위해 새로 지은 물탱크와 개축된 우물에 '어머니 스승 칭하이'라는 성호를 새겼다.



가 물을 길어 와야 하는 고통을 면하게 해주신 스승님께 진심으로 감사했다.

## 신의 은총에 젖은 '제왕의 땅'

이번에 동수들이 재난 구호 활동을 펼친 곳은 앞서 말했듯이 라자스탄 주인데, 이는 현지어로 '제왕의 땅'이란 뜻이다. 이곳에 위용을 자랑

하듯 늘어선 정교하고 고전적인 양식의 고대 황궁과 성들을 통해 이





곳이 영적으로 매우 고양된 곳을 알아볼 수 있다.

동수들이 텔리에 도착했을 때 조드푸르까지 태워다 준 젊은 운전 기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 한 사람은 가는 동안 줄곧 동수들과 수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3주간의 긴 구호 활동 기간 동안 스승님의 사랑에 감동한 기사들은 자진해서 우리 단체의 녹색 조끼를 입고 열성적으로 우리 일을 도왔으며, 마지막엔 세 사람이 방편법을 배우고 두 명이 입문을 해서 관음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동수들은 구호 물품뿐 아니라 영혼의 감로수인 스승님의 견본책자도 함께 나눠 주었다. 견본책자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책을 받자마자 지혜안에 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현장에서 토론을 벌이거나 견본책자를 자신의 택시 앞 유리 안쪽에 놓아두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이들 역시 스승님의 사진을 얻기 위해 물려들었다. 동수들은 원래 아이들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실내에서 스승님의 강연 비디오테이프를 상영했는데 어른들도 흥미진진한 모습으로 서서 지켜봤다. 삶은 고되지만 라자스탄 주민들의 영성에 대한 갈망은 참으로 대단했다.

일정 중에 작업 팀은 ‘라만 게스트 하우스’라는 농장에 투숙하게 되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 집 주인의 처남은 미리부터 현관에 나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 주었다. 그는 요 며칠 동안 밤마다 꿈속에서 다양한 형상과 모습을 하신 스승님을 보았다고 얘기했다. 또 동수들의 모습도 봐서 그런지 동수들이 도착하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친밀하게 느껴졌다고 한다.

이 중 주목할 만한 일은 MMBA의 회원들이 근 한 달 간 우리와 함께 일하면서 지혜와 사랑을 키우는 것이 자신들의 자선 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MMBA 회원 중 여덟 명이 입문을 해 인도에 더 많은 진리의 메시지를 가져다주고자 스승님의 가르침을 번역하는 일을 자원, 이에 착수했다.

장장 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구호 흥법 여행 중 50여 명이 방편법을 배우고 20여 명이 입문을 했으며,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스승님을 알게 됨으로써 영혼이 고양되었다. 방편법을 전수받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빛을 보거나 화신 스승님을 보는 등 체험이 좋았다. 사람들은 만족스런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동수들에게 말했다. “나는 신을 보았어요!”



▲ 인도인 기사가 자진해서 스승님의 대형 법상과 현수막을 구호 차량에 걸고 있다.



▲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받고 토론하고 있는 라자스탄 주민들.



▲ 방편법을 전수받고 기뻐하는 젊은이들의 모습.



▲ 라자스탄의 TV 방송국에서 구호 활동을 펼친 한 동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인도인들은 동의를 나타낼 때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 구호 물품 트럭이 오다!

[2003. 4. 29. 조드푸르] 라자드 쿠마르 미쉬라 라자스탄 시장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조드푸르 지역 구호 활동을 비준함에 따라 트럭들이 최근 가뭄 피해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  
에 식료품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구호 활동이 전개되는 동안 미  
쉬라 시장은 협회의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숭고하고 인도  
주의적인 노고를 치하했다.

SMCH 협회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거나 재해로 고통을 겪  
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배풀고 있다. 협회의 이상은 도움이 필요한 이재민들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시간이나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다. 정부 관리인 라지브 자  
인 씨는 협회가 업판드 조드푸르, 파이파드, 팔로디, 오시안, 소가드 등 조  
드푸르 인접 지역에 트럭 5대 분의 구호 물자를 보내 가뭄 피해를 입은 이 지역의 수천 세대에 도움을 주었다  
고 얘기했다. 각 트럭은 밀과 콩, 식용유 등 11톤의 구호 물품을 실어 날랐다.



### 칭하이 무상사 지원, 인도 북서부 가뭄 구호 활동 지출 내역

(단위: 루피)

항 목	금 액	영수증
팔리 지역 이재민을 위한 식료품	884,940	B1
조드푸르 및 바메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식료품	1,671,250	B2
자이살메르 지역 이재민을 위한 식료품	1,317,750	B3
운송비	92,505	B4
잡화 (현수막 제작을 위한 천, 테이프 등)	40,504	B5
지하 물탱크	1,041,500	B6
우물 개축 공사비	337,500	B6
자이살메르 적십자에 지급한 교통 보조비	25,000	없음
전화 통신비	3,745	없음
합 계	5,414,694 (약 US\$116,294.97)	





## 아르헨티나 소식

### 스승님의 사랑이 산타페에 희망을 전하다

2003년 4월 말 500년 만의 최악의 홍수가 아르헨티나의 산타페 지방을 강타했다. 살라도 강과 파라나 강 사이에 끼어 있는 이곳 주민들은 평소 파라나 강의 잦은 범람으로 인해 대비가 잘 되어 있었지만, 이번 경우에는 산타페 북서쪽을 급습한 집중 폭우가 계속되는 바람에 몇 시간 만에 살라도 강까지 제방이 터져 인근 마을 전체가 침수되고 산타페 시의 1/3이 피해를 입어 2미터 수위에 잠겼다.

갑작스런 이번 재난에 많은 주민들은 아이들만 데리고 급격하게 밀려드는 무정한 홍수를 피해야 했으며, 미처 피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보트로 구조되길 기다렸다. 산타페 주민들 대다수가 전 재산을 잃었고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다. 스스로 지역을 떠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8만여 명은 학교로 대피해 머물고 있으며, 홍수로 고인 더러운 물 때문에 전염병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국민은 신속하게 힘을 모으고 있으며 국제적인 구조 단체들도 속속 도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홍수 피해 소식을 접하신 스승님은 구호 활동을 서두르라고 지시하셨다. 먼저 브라질 동수 두 명이 그 즉시 아르헨티나의 수도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 스승님의 정확한 지시에 따라 산타페의 상황을 조사했다. 주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품을 파악하신 스승님은

담요 3천 장과 수건, 어린이를 위한 사탕을 시급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이르셨다. 이에 앞서 이곳의 한 의학 연구소의 임원들은 성금을 모아 수재민들을 위한 매트리스와 담요, 식량을 구입해 놓고도 물자를 신속히 전달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고 있던 중 예전 우리와의 접촉을 통한 스승님의 신성한 사랑을 떠올리곤 우리 단체에 물품 분배를 맡기기로 결정했고 우리도 기여이 응낙했다.

구호 활동 기간 동안 깊은 동포애와 동일체의 믿음을 안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동수들 열 명과 브라질 동수 두 명이 산타페에 도착했다. 며칠 간 집중적인 활동을 펼친 끝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까지 모든 안배가 끝나고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동수들은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담요, 수건, 사탕을 트럭으로 하나 가득 싣고 진창길을 헤쳐 상



이재민들에게 가장 시급한 물자를 배분하다. 어린이들도 사탕과 비스킷을 받았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동수들로 조직된 재난 구호 팀이 피해 지역 깊숙이까지 스승님의 관심을 전하다.

황이 가장 안 좋은 마을로 향했다. 산로렌소, 센테나리오, 포나비, 라 로마스 등 일부 지역은 온 마을이 물에 잠겨 통과할 때 굉장히 위험하기도 했다. 동수들은 또한 도움이 절실한 모코비스 인디언 마을도 방문했다.

견본책자와 담요, 사탕을 받은

원주민들은 스승님을 알게 되자 고개를 끄덕이곤 동수들을 끌어안고 키스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순한 물질적 도움뿐 아니라 스승님의 사랑과 영적인 힘도 함께 전해 받았다는 것을 알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스승님께 감사 편지를 보내기 위해 스승님의 주소를 물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스승님의 사진을 보여 주자 천진한 아이들은 우리에게 “스승님께 키스를 대신 전해 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 중 한 마을에 선 한 남자가 딸을 안고 있다가 담요를 받고는 깊은 감동을 받아 딸을 내려놓고 가장 아끼는 보물인 좋아하는 축구 팀의 티 셔츠를 벗어 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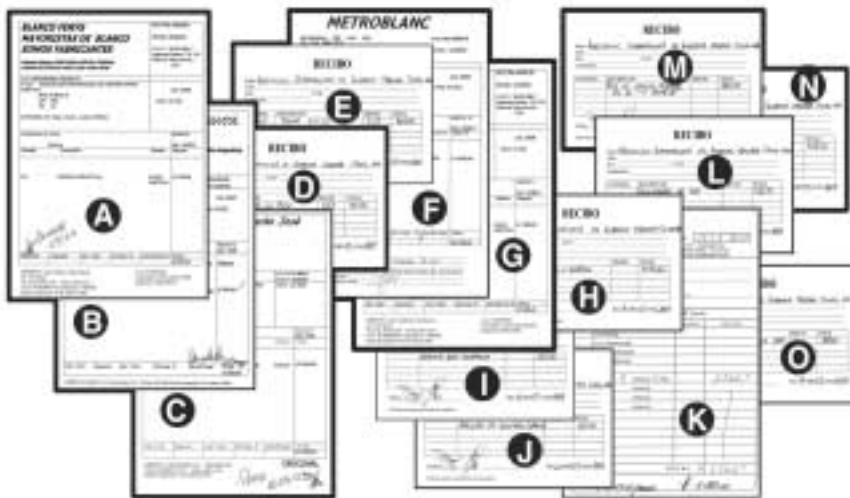
구호 활동을 마친 후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구호 담요 덕분에 따뜻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고 얘기했다. 어떤 이들은 우리를 도와 물자를 배분해 주었고, 견본책자를 읽은 후 우리 관음 가족의 일원이 되길 희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산타페 수재민 구호 활동에 참여했던 동수들에게 있어 이번 활동은 스승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던 잊지 못할 행사였으며, 또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과 자신을 도운 귀중한 경험이었다! 홍수의 참화를 겪은 산타페는 이제 스승님의 사랑으로 다시 희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

## 청하이 무상사 지원, 아르헨티나 수재민 구호 활동 지출 내역

(단위: 페소)

항 목	지출 금액	영수증
담요	38,655.00	A-D
수건	22,714.00	E-G
사탕, 비스킷 등	4,573.00	H
포장비	280.00	I
사무용품	103.70	J
인쇄비	1,285.00	K
라이터	126.75	L
운송비	2,089.00	M-N
창고 임대료	200.00	O
합 계	70,026.45 (=US\$25,489.25)	





## 다 함께 사스를 물리치자

*사스와 싸우는 영웅들을 격려하고 국민 건강을 기원하다!*

2003년 5월 6일 타이베이 센터와 국립 대만대학 광음회, 국립 사범 대학 심신 성장회 등으로 구성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들은 일선에서 사스와 맞서 싸우고 있는 타이베이 시 소방국의 영웅들에게 면역 강화 음료, 사랑의 카드, 격려 포스터, 스승님의 뉴스잡지, 견본책자 등이 포함된 40여 세트의 선물을 전달했다.

소방국 책임자 송광화 씨는 산하 사십여 소방 분대를 대표해 이 선물을 받고 감사를 표했다. 타이베이 동수들은 그 중 쑹시아오 분대와 푸싱 분대를 특별히 방

문해 꽃과 선물을 전달하고 격려하면서 사스와 소리 없는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익명의 영웅들에게 스승님의 사랑을 전했다.



## 모두가 사스와 싸우는 전사

사스가 전국에 확산되면서 누구나 사스와 싸워야 할 전사가 되었다. 시후 센터도 외부 손님의 방문을 잠정 보류하고, 동수들이 센터에 들어올 때는 마스크 착용과 체온 검사, 엄격한 소독 등의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사스에 대항하고 대중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 의료 영웅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전하다

5월 12일 세계 간호사의 날을 맞아 동수들은 타이베이 시정부를 방문해(사진 1) 시정부 공무원들의 사기를 고취시켰다. 천칭안 과장은 동료들을 대신해 선물을 받고(사진 2) 공무원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정신적 지지를 보내 준 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서 동수들의 발길이 향한 곳은 위생국. 이곳에선 씨아오둥밍 주임 서기관이 대표로 꽃과 사기를 복돋는 포스터,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받고(사진 3), 지금은 이런 긍정적인 격려가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하면서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방역 활동에 나서 사랑으로 이 사스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방문한 사회국에서는 황원핑 비서가 동료들을 대신해 선물을 받고(사진 4) 사회국 소속의 모든 직원들은 시정부와 함께 사스와 맞서 싸울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했다.



사진 4

사스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위험은 잊은 채 지혜와 박애, 용기의 표상을 보이며 전력을 다해 사스에 감염된 불운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의료 활동가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동수들은 송산 국군 병원을 방문해 선물과 꽃바구니, 감사 카드를 전달했다.(사진 5) 그후 다시 찾아간 삼군 종합병원 간호부의 쉬산산 부주임은 동수들의 시기 적절한 지지와 격려에 매우 고마워했다. 또한 그녀는 의료진의 경우 완전 무장을 한 상태라야 '전장'에 내보낸다고 약속하면서 의료진 가족들의 이해와 지지를 바라는 한편 사회에서도 의료진들에게 더 많은 성원을 해주길 희망했다.(사진 6)



사진 5



사진 6

## 의료진들에게 사랑의 마스크를 전달하다

포모사인들이 사스를 물리치기 위해 열심히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포모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들은 미국 동수들의 도움으로 6만 3천 장의 N95 마스크를 구입해 일선 의료진들을 지원했다.(사진 7) 태평양을 건너온 1차 마스크가 5월 24일 장개석 국제공항의 통관을 끝내자



사진 7





사진 8

국제협회는 N95 마스크 12,640장과 외과용 마스크 33,000장을 위생서에 기탁했으며, 위생서 중앙 보건국 비서실 관리 팀의 야오찬 송 요원이 정부를 대표해 물품을 접수했다.(사진 8) 방역 물자 배급을 책임지고 있는 위생서 중앙 보건국은 방

역 작업을 펼치고 있는 의료진을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해 포모사 내 주요 병원들과 의료 센터들에 이 마스크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6월 초 타이베이에 도착한 최종 마스크도 의료 센터에 전량 보급되어 제일선 의료진들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을 전했다.



## 포모사 · 프랑스 종합 보도

### 바다 건너 사랑을 전한 알제리 지진 구호 활동

구호 물자를 긴급 수배해 이재민들을 돕다

2003년 5월 21일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동쪽으로 55마일 떨어진 부메르데스 시에서 진도 6.7의 강진이 발생해 도시를 초토화시켰다. 최초의 지진으로 타격이 심한 데다 이어진 몇 차례의 여진 때문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칭하이 무상사는 국제협회의 동수들에게 긴급 구호 물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지역에 전달함으로써 지진 이재민들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 이에 포모사 동수



들로 협력하며 작업에 여념이 없는 동수들의 모습. 각 텐트 속에는 사랑의 구호 물자와 위로 편지가 들어 있다.

들은 가정용 텐트 3,571개, 담요 1만 장, 두껍고 따뜻한 외투 194벌 등의 구호 물자를 대량 구매했다. 포모사 전역의 동수들이 타오웬 센터에 모여 물자별로 포장한 것을 상자 속에 담으며 밤샘 작업을 벌였다. 물자들은 5월 30일 장개석 국제공항으로 운반돼 포모사 외교부와 중화항공의 도움을 받아 파리로 운송되



여섯 대의 대형 트럭을 가득 채운 24톤의 구호 물자.

었다. 파리에서 유럽 동수들과 적십자사, 프랑스 주재 알제리 영사 사 이드 압디히 씨로부터 다시 한 번 도움을 받은 물자는 6월 3일 피해 지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 어려움 속에 잠든 정(情)이 샘솟다

지진의 진원지인 부메르데스 지역의 건물들이 상당수 붕괴됐고 주민들은 여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리에서 숙식하고 있다. 압디히 씨는 우리에게 이재민들의 필요에 꼭 맞아떨어지는 물자를 보내 줬다고 하면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가 보내 온 편지를 받고 스승님이 알게리 지진 사태를 접하신 후 잠 못 이루하셨다는 것을 알고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압디히 씨는 언론 보도보다 훨씬 더 많은 3천여 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의 수도 셀 수 없을 정도라고 얘기했다. 특히 병원과 학교 등 대부분의 건물들이 새로 지어야 할 형편이라고 얘기했다. 압디히 씨는 이런 엄청난 규모의 복구 사업이



프랑스 주재 알제리 영사인 사이드 압디히 씨(오른쪽 두 번째)가 구호 물자를 실은 트럭 앞에서 동수들과 악수를 나누고 함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의 양쪽은 압디히 씨의 보좌관이다.

진행되기 위해 국제적인 인도주의 단체들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같은 단체로부터 지원과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정말 잘됐다고 얘기하며 우리의 활동을 통해 큰 위안과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파리 공항에서 구호 물자의 운송을 맡은 사람 중에 룩셈부르크에서 온 알제리인 트럭 기사가 있었는데, 스승님의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은 그는 자신의 트럭에 꽂아 뒀던 우리 구호 팀의 깃발을 기념으로 갖고 싶어했다. 이날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스승님의 충만한 사랑을 느끼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 합심하여 사랑의 기적을 일구어 내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는 6월 6일 타이베이에서 ‘손에 손잡고 알제리에 사랑 보내기’ 활동을 지원해 준 단체들에 고마움을 전하는 행사를 개최한 자리에서 구호 물자들이 알제리 지진 이재민들의 손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동수들은 이번 구호 활동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외교부와 중화항공 및 홍콩운송의 귀빈들과 함께 서로 합심해 일구어 낸 성공의 기쁨을 나누며 상호간의 협력과 도움이 인류에게 온정과 희망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외교부 루칭룽 대사는 일주일 새에 구호 물자를 모아 이재민들에게 전달까지 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작업 효율성에 크게 감탄했다. 알제리는 포모사와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아 물자 운송 및 인도, 세관 통과가 매우 어려웠지만, 다행히 유럽 동수들과

포모사 매체들은 국경을 초월한 이번 알제리 활동을 보도하며, 인류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대중에게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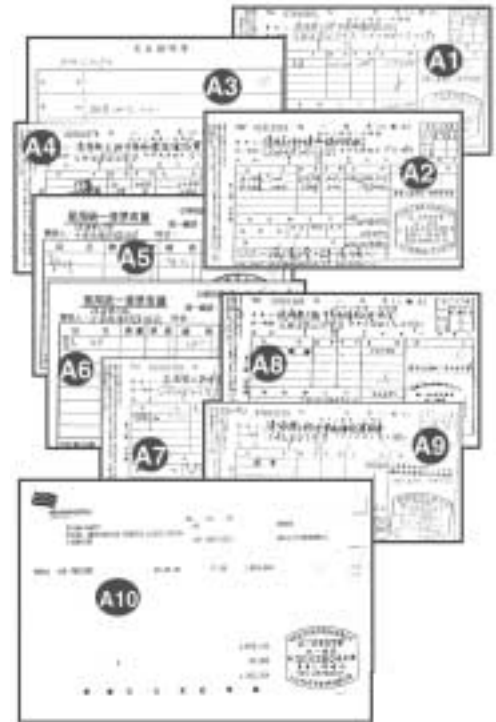
국제 적십자사, 알제리 압디히 영사의 전적인 도움 덕분에 바다를 건넌 이번 구호 활동이 짧은 시간 안에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 루 대사는 또 이번 국제적인 인도주의 구호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포모사의 긍지와

영광을 대표해 민간 외교를 수행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와 중화항공, 홍콩 운송을 높이 치하했다.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알제리 지진 구호 및 원조 지출 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항 목	지출 금액	영수증
담요	1,102,500	A1
가정용 텐트	2,214,660	A2
포장비	12,923	A3-A4
문구 및 인쇄비	9,075	A5-A7
국내 운송비	39,900	A8-A9
항공 운송비 및 관세	1,952,204	A10
합 계	NT\$ 5,331,262 (약 US\$ 153,417.61)	



## 행사 메모

지구에서 진행 중인 영성 고양에 발맞춰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전세계 각지에서 비디오 강연회와 흥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친구, 친척들과 참석해 스승님의 사랑과 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최근의 흥법 활동 일정에 대해선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Godsdirectcontact.org/seminar/>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minar/index.htm> (포모사)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



(원문 붙어)

날짜: 2003년 6월 5일 파리  
발신: 알제리 민주인민공화국  
외무부 파리 주재 알제리 대사관  
수신: 대만/ 파리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스승님께

저는 지난 6월 4일 부메르데스와 알제의 이재민들에게 가정용 텐트 3,571개와 담요 1만 장, 외투 194벌을 보내 주신 스승님의 뜻깊은 원조에 감사드리는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보내 주신 구호 물품은 이재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며, 지난 6월 2일(월요일)과 3일(화요일), 알제로 긴급히 수송되어 6월 3일 당일 도착해 분배되었습니다.

이 귀중한 물품들이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전해졌기에, 저희 국민을 대신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전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행정 기관과 항공사, 그리고 이 인도주의 활동에 물질적·정신적으로 협조해 준 모든 분께 대신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분들의 도움으로 스승님의 기증품들이 신속하게 도착해 알제의 긴급한 상황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의 마음속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치며, 관련 단체들에게도 저희의 성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경의를 바치며

총영사  
사이드 압디히 드림







## LA 음악 주간과 음악학교 학생들이 칭하이 무상사께 깊은 감사를 표하다

10년 가까이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은 LA 시에 크게 기여한 재능 있는 음악가들을 표창해 왔다. 지난 2002년 12월 음악 주간의 설립자이자 집행이사인 매기 에번스 여사는 월서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 시상식에서 칭하이 무상사에게 크리스털 표창패와 제임스 한 LA 시장이 서명한 표창장을 수여하며 음악 및 박애 활동에 대한 그녀의 공헌을 높이 평가했다. 시의원인 웬디 그루엘 여사도 LA 시청에서 열린 음악 주간 시상식 및 선포식에서 스승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LA 음악 주간의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는 어린이들에게 음악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 다원적인 음악 문화를 경험케 하는 것이다. 에번스 여사는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적 재능에 대해서뿐 아니라 인류와 어린이들에 대한 무한한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사랑의 길을 걷다’ 비디오에서) 칭하이 무상사가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어린이들을 어루만지는 모습을 보았답니다. 그 아이들의 희망은 오로지 신밖에 없었는데 스승님은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 중에는 전염병에 걸린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그들을 만졌 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소 불행한 사람들을 만지거나 돕는 일을 꺼리는데 말이에요. 나는 스승님의 일이 꼭 필요하고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건강이 회복된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고요. 인도주의자로서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도 그녀의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언제나 어린이들

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아이들의 예능 교육을 독려해 왔다. 파사데나에 장학 기금을 기부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에게 음악 캠프에 참가할 기회를 제공했으며, 1999년 아르메니아 방문 당시에는 아르메니아의 여성 의원인 인기 가수 나테차 살키시안이 설립한 헤이어 문화재단에 아낌없는 지원을 베풀기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과 LA 시의 칭하이 무상사 표창을 보도한 매체 보도.



도 했다. 헤이어 재단은 무상사의 사랑의 선물을 음악 교육과 악기에 투자해 어린이들의 음악 재능 계발을 도왔으며, 아르메니아 어린이들에 대한 스승님의 관대한 마음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서 한 학교의 이름을 '칭하이 무상사 고등학교'라고 명명하기도 했다.

‘평화의 음악, 하나 된 세상’ 자선 콘서트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성유다 소아병 연구 병원과 별빛 어린이 재단, 두 곳의 어린이 자선 단체에 기금을 전달함으로써 불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져 주었다. LA 음악 주간과 로스앤젤레스 시의 시상식이 끝난 후 LA의 어린이 음악도들을 위한 ‘어린이의 날’이 열렸다. 이날 칭하이 무상사는 『평화의 음악, 하나 된 세상』 악곡집 100권을 기부함으로써 다시

한 번 LA 시 어린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으며, 그후 4천 달러를 기탁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보다 나은 음악 교육을 받고 악기를 갖추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매기 에번스 여사는 감사편지(아래 참고)를 통해 스승님께 해당 학생들을 방문해 주시길 바라는 성심어린 마음을 전했다.

감사 편지 

(원문 영어)



##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

‘인류의 더 큰 화합을 위해’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귀중

‘LA 음악 주간’은 2003년 3월 22일 귀 협회에서 기부하신 4천 달러를 잘 받았습니다. 이 성금은 재정이 어려운 LA 시내 고등학교의 악기 구매에 쓰일 예정입니다.

지원을 받은 학교에서는 기부금을 받은 즉시 감사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언제라도 이 학교들을 방문해 주시길 성심으로 바라며, 방문하실 때 미리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집행이사

매기 에번스





## 대구 지하철 참사에 대한 구호금

2003년 2월 18일 대구에서 참혹한 지하철 사고가 발생해 200여 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와 실종자를 낳았다. 마침 아침 출근 시간에 일어난 참사로 인해 직장 여성들과 학생들이 희생되었으며 많은 소방관들이 불길에 순직하였다. 피해 규모 또한 엄청나서 대구시는 아직까지 복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한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금을 모아 구호 활동을 돕고 있다.

스승님의 자비로운 귀감을 따라 한국의 각 센터에서는 한 달 동안 희생자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아 2003년 3월 30일 주요 일간지인 『중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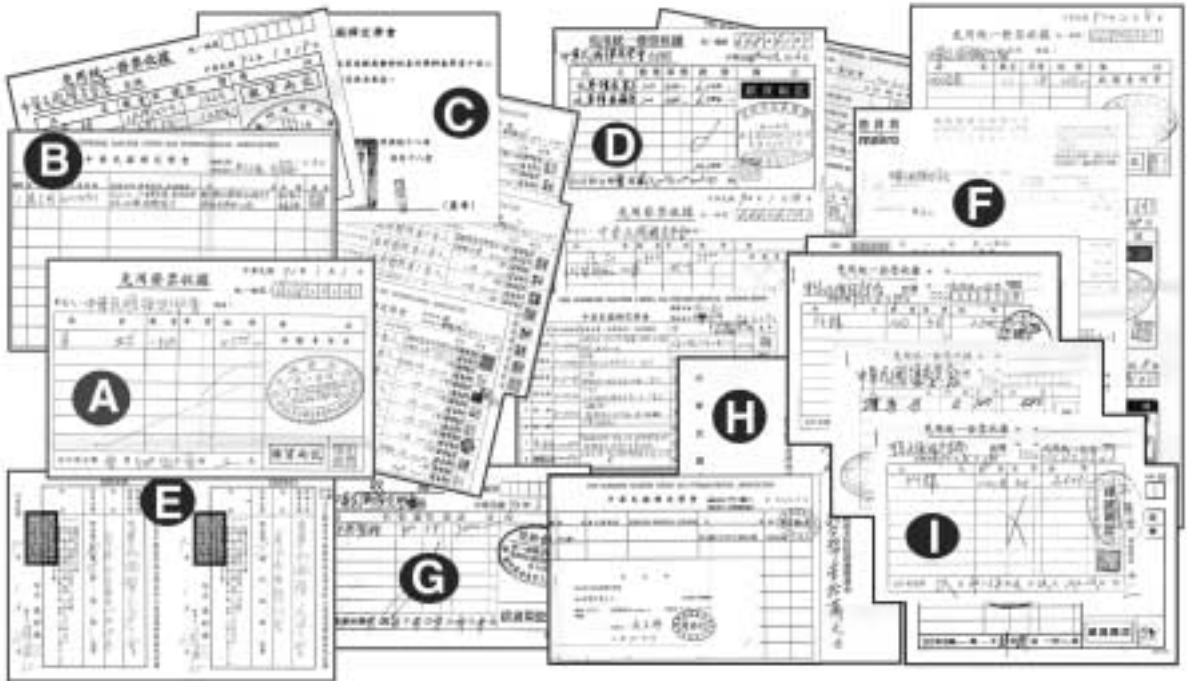


출금인	입금인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처
		1	₩1,500	입금
중앙일보사	(11-99-00000)	한국 내재 계좌 기타	₩1,500,000	₩1,500,000

은행 입금 증서

보』측에 3,108,070원(미화 약 2,600달러)을 기탁하였다.

##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사랑의 활동 영수증





##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내역

표 1, 2의 총계: NT\$723,465(미화 약 20,819.14달러)

표 1: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각종 자선 활동 지출 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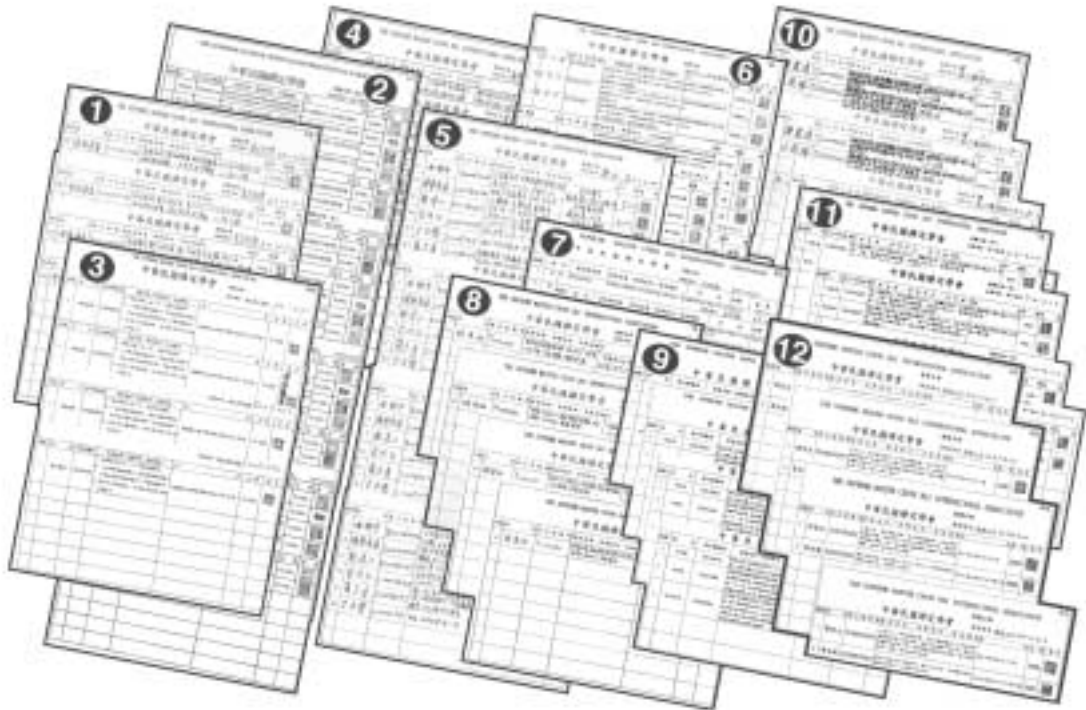
장 소	일 시	내 역	금 액	영수증
창화	2003. 1. 1.	창화 현 파청 향 산지아오 촌에서 환경 보호 세미나 및 채식 시식회 개최	4,500	A
신주	2003. 1. 18.	추운 겨울 온정 나누기, 신주 현 어려운 세대에 음력 설 위로금 전달	10,000	B
핑둥	2003. 1. 19.	추운 겨울 온정 나누기, 핑둥 현 완루안 향 신즈 촌 어려운 노인들에게 음력 설 위로금 전달	8,910	C
타이난	2003. 1. 19.	추운 겨울 온정 나누기, 타이난 현 어려운 세대에 음력 설 위로금과 선물 전달	87,700	D
타이난	2003. 1. 20.	타이난 청소년 감호소 방문, 영상 비디오 세미나 개최, 레크레이션 활동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0
까오슝	2003. 1. 21.	까오슝 청소년 감호소 방문, 레크레이션 활동 개최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3. 1. 22.	타이난 교도소 방문, 레크레이션 활동 개최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3. 1. 22.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레크레이션 활동 개최 (동수 지원)	0	
창화	2003. 1. 23.	추운 겨울 온정 나누기, 천주교 사립 자애(慈愛) 장애 보육원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세뱃돈 전달	37,000	E
미아오리	2003. 1. 24.	시후 향사무소의 환경 보호 운동의 일환에 참여,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작업 (동수 지원)	0	
창화	2003. 2. 5.	창화 소년 교정원 방문, 레크레이션 활동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핑둥	2003. 2. 9.	핑둥 환경보호국과 형춘 면사무소의 환경 보호 활동에 동참, 형춘 면의 유명한 다이빙 장소인 '후비 호(湖)' 해변 청소	11,395	F
타이난	2003. 2. 26.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영상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3. 2.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의학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핑둥	2003. 3. 7.	대만 전력공사 제3 핵발전소의 초청으로 영상 세미나 개최 및 명상법 지도	3,000	G
타이난	2003. 3. 26.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레크레이션 활동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타이난	2003. 3. 27.	타이난 교도소 방문, 의학 세미나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신주	2003. 4. 17.	추운 겨울 온정 나누기, 주런 초등학교에 성금 전달	100,000	H
미아오리	2003. 4. 20.	시후 향사무소의 환경 보호 운동의 일환에 참여, 미아오리 28번 국도 청소 작업 (동수 지원)	7,960	I
타이난	2003. 4. 24.	밍더 개방 교도소 방문, 레크레이션 활동 및 명상법 지도 (동수 지원)	0	
합계			NT\$270,465	



표 2: 2003년 1월부터 4월까지 포모사 내 극빈 가정에 전달한 구호금 내역

(단위: 대만 달러 NT)

지역	2003년 1월		2003년 2월		2003년 3월		2003년 4월		영수증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가구 수	금액	
지룽	1	2,000	1	2,000	1	2,000	1	2,000	1
타이베이	6	16,000	6	16,000	6	16,000	6	16,000	2
타오웬	1	2,000	1	2,000	1	2,000	1	2,000	3
신쭈	1	3,000	1	3,000	2	6,000	2	6,000	4
타이펑	6	20,000	6	20,000	6	20,000	6	20,000	5
난토큐	7	26,000	7	26,000	7	26,000	7	26,000	6
지아이	3	8,000	2	5,000	2	5,000	2	5,000	7
타이난	1	4,000	1	4,000	1	4,000	1	4,000	8
까오슝	3	10,000	3	10,000	3	10,000	3	10,000	9
핑둥	3	10,000	3	10,000	3	10,000	3	10,000	10
타이둥	2	8,000	2	8,000	2	8,000	2	8,000	11
평후	2	5,000	2	5,000	2	5,000	2	5,000	12
소계	36	114,000	35	111,000	36	114,000	36	114,000	
합계	NT\$453,000								





# Quan Yin Web Sites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links/links.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qyitv.com>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어)  
<http://www.godsdirectcontact-thai.com/> (태국-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net> (미국-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불어, 영어, 중국어 번체/간체 지원)  
<http://www.contactodirectocondios.org/> (미국-스페인어)  
<http://www.CauThongVoiThuongDe.com>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 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다국어 지원)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radio/aulac/> (캐나다 Real Audio & MP3-어울락어 유니코드)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quanyin.narod.ru/> (러시아-러시아어)  
<http://www.conta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E-메일로 잡지를 받아 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 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http://www.godsdirectcontact.or.kr/board_m/bbs.php3?table=SMCH2_22&query=list&p=1)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 \*\*\*아프리카\*\*\*

★ 앙골라	센터	244-92-338082 luandacentre@yahoo.com
★ 베닌	센터	229-38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두알라 센터	237-34-37232 smcameroon@hotmail.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72-603953 atmoske@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chmauritius@intnet.mu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smchmauritius@intnet.mu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더반	센터 27-31-368-7759 durbancentre@yahoo.com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s. Dieketseng Napo 27-83-456-3968 dnapo@webmail.co.za
★ 토고	팔리메	센터 228-4-410-948
	로메	센터 228-2-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2-215-551
★ 우간다	감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backhome25@hotmail.com
★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Ms. Adalina da Graca Munhoz 591-337-2039 adamunh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4424 55-91-2746611 belemcenter@yahoo.com.br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파울루	센터 55-11-5904-3083/ 5579-1180 br_center@yahoo.com.br
★ 캐나다		

에드먼턴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dangvansang@hotmai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런던	센터	1-519-438-3702 uniself@yahoo.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smchmontreal@look.ca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p_euchariste1@sympatico.ca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phathung20@yahoo.ca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오타와	Mr. Tuan Duong	1-613-565-0862 et323@ncf.ca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Ms. Diep Hoa	1-905-828-2279 hoadiep0723@yahoo.com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hiepham@rogers.com
	연락인 사무실	torontocontact@yahoo.ca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80-4087 jsung99@shaw.ca
	Ms. Sheila Coodin	1-604-580-4087 qycontactperson@yahoo.ca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yentnguyen2002@yahoo.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451019 laserenacenter@hotmail.com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s. Blanca Elizabeth Pedraza	57-1-6240217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632-748 lauracmesa401@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s.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86-568-4575 eternalmaster2002@yahoo.com.mx
멕시코 D.F.	센터	52-55-5752-7472/ 5639-3506 kamel@igo.com.mx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5-5852-1256 tecenter@adatel.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9-0897 m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ve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 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thanhgiang1990@yahoo.com
★ 파라과이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torahi@ureach.com
아송시온	Ms. Emilce Cespedes Gimenez	595-2-523684 ec_py2002@yahoo.com,ar	플로리다 :	
★ 페루			*케이프코랄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Thaidbzad@msn.com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Ms. Trina L. Stokes 1-239-433-9369 tls1095@earthlink.net
리마	센터	51-1-4716472	*올랜드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Mr. Edgar Nadal &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edyter@viabcp.com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georgiacenter@hotmail.com
	Mr. Victor Carrera	51-1-2650310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punocentroperu@yahoo.es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larv@terra.com,pe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hawaiictr@hotmail.com
★ 살바도르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DorothySakata@aol.com
산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quijano_manuel@yahoo.es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caominhtran@yahoo.com
★ 트리니다드 섬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Duchanh@aol.com
	Mr. Ray Alibocus	1-868-637-1054 alibocus@tstt.net,tt	켄터키 :	센터 kycenter2000@yahoo.com
★ 미국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FNGUYEN@MAIL.STATE.KY.US
애리조나 :	센터	1-602-264-3480	루이지애나 :	Mr. John L. Fontenot 1-504-483-3234 jlfontenot@hotmail.com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kennynngoaz@hotmail.com	메릴랜드 :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MARYLANDCENTER@yahoo.com
아칸사스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bobedj@cox-internet.com	메사추세츠 :	
캘리포니아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shinemound@earthlink.net
*로스앤젤레스	센터	1-909-674-7814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tllin54@hotmail.com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SanGabriel99@hotmail.com	미시간 :	Mr. Martin John White 1-734-327-9114 mading02000@yahoo.com
	Mr. Gerald Martin	1-310-836-2740 gmartin0999@hotmail.com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quach001@msn.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saccenter.ca@usa.com	미주리 :	
*샌디에이고	센터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MSteck5208@aol.com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콜라	Mr. & Mrs. Genda Chen 1-573-368-2679 gchen@umr.edu
*샌프란시스코	센터	KHOALUONG@aol.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croberts@lps.org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sfcenter@hotmail.com	네바다 :	
*산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Sophie.Lapaire@eng.sun.com	*라스베이거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Edgar-Teresa@worldnet.att.net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c_newjersey@yahoo.com
	Mr. Loc Petrus	1-510-276-4631 petrusl2k@earthlink.net		Mr. Chang Sheng Chou 1-973-335-5336 JohnChou@ymusa.com
	Mr. Jim Su	1-408-253-8516 SumaJim@aol.com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342-2252 anawarskas@hotmail.com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뉴욕 :	Mr. & Mrs. Zhihua Dong 1-718-567-0064





		dong@phys.columbia.edu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sumaemc@yahoo.com
		dcouch@rochester.rr.com	★ 푸에르토리코	
노스캐롤라이나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카위	Mrs. Disnalda Hernanadez Morale 1-787-262-1874
오하이오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disnalda@caribe.net
		ohiocenter@yahoo.com		
	Mr. Gilbert Rivera	1-937-746-3786		
		wisdmeve@aol.com		
오클라호마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LTRAN2292@aol.com		
오리건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타이베이	센터 886-2-2706-6168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tpe.light@msn.hinet.net
		oregon_center90@yahoo.com	Mr. & Mrs. Loh, Shih-Hurng	886-2-2706-2628
	Ms. Youping Zhong	1-503-257-2437		shloh@ndmctsggh.edu.tw
		youping320@yahoo.com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펜실베이니아	Mr. & Mrs. Diep Tam Nguyen	1-610-352-7787		Mr. Chu, Chen Pei 886-37-724726
		DiepAshleyPa@aol.com	까오슝	Mr. & Mrs. Zeng, Huan Zhong 886-7-7534693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 홍콩	센터 852-27495534
텍사스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joyandlove3@hotmail.com
		jjdawu@yahoo.com	★ 인도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मुंबाई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trandungdean@yahoo.com	캘커타	trust_god@rediffmail.com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Mr. Ashok Sinha 91-33-655-6741
		DallasCenter@yahoo.com		shive@cal.vsnl.net.in
	Mr. Tim Mecha	1-972-395-0225	★ 인도네시아	
		t.mecha@attbi.com	발리	센터 62-361-231-040
	Mr. Weidong Duan	1-972-517-5807		smch_bali@yahoo.com
		water96@yahoo.com	Mr. Agus Wibawa	62-81-855-8001
	Mr. Jimmy Nguyen	1-972-206-2042		wibawa001@yahoo.com
		DallasCenter@hotmail.com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smch-jkt@dnnet.net.id
		CHINGHAI_TX@sbcglobal.net	Mr. Tai Eng Chew	62-21-6319061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Ms. Lie Ik Chin	62-21-6510218
		cadamson@houston.rr.com		finance1@ueii.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251-8812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cuc_le@sbcglobal.net		hai@cbn.net.id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Mr. I Ketut P. Swastika	62-21-7364470
		robert.yuan@hp.com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irn_up@yahoo.com
		lethong@hotmail.com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버지니아	센터	1-703-941-0067		yudi_wartono@telkom.net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anhhlly@hotmail.com	Mrs. Merlinda Sjaifuddin	62-61-4514656
*버지니아비치	Mr. David Young	1-757-588-8468		smch_medan@hotmail.com
		davidkyoung@hotmail.com	수라바야	센터 62-31-5612880
워싱턴				ahimsasb@indosat.net.id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Mr. Harry 62-31-594-5868
		benptran@aol.com	육야카르타	harry_1@sby.dnet.net.id
	Mr. Edward Tan	1-206-228-8988		Mr. Augustinus 62-274-588-105
		edtan@usa.com		t.adianingtyas@eudoramail.com
*와이오 밍			★ 이스라엘	Mr. Yaron Adari 972-9-866-6247
				ya05@netvision.net.il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divinalv@nth.biglobe.ne.jp  
다테야마 센터 81-470-209127  
tateyama\_lg@yahoo.co.jp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cal13840@pop07.odn.ne.jp  
Ms. Yoshie Takeda 81-90-3963-0755  
y-plus@f6.dion.ne.jp

★ 한국

출판사 031-772-9250  
chinghai@unitel.co.kr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houmri1@kornet.net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quanyim@unitel.co.kr  
유태인 02-795-3927  
이지자 02-599-1701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chinghaibusan@hanmail.net  
송호준 051-957-4552  
황상원 051-805-7283  
전주 전주 센터 063-274-7553  
shc5824@hanmail.net  
신현창 063-254-5824  
인천 인천 센터 032-579-5351  
이재문 032-244-1250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chinghaidaegu@hanmail.net  
김익현 053-633-3346  
한선희 053-767-5338  
차재현 053-856-3849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김수동 042-254-7309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조명대 061-394-6552  
smgwangju@naver.com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김삼태 054-821-3043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 마카오 센터 853-532231  
macau\_center@email.com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 말레이시아  
알로르세타르 Mr. Chiao-Shui Yu 60-4-7877453  
조호르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6622518  
supreme2@tm.net.my  
팔라룸푸르 센터 603-9287-3904  
klsm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klgcp@hotmail.com  
페낭 센터 6-018-2413832  
pgsmch@pd.jaring.my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 몽골

울란바토르 Ms. Erdenechimeg Baasandamba 976-11-350422  
baasandamba@yahoo.com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121-21174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 네팔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Mr. Ajay Shrestha 977-1-473558  
ajaystha@hotmail.com  
포카라 센터 977-61-28455  
Mr. Bishnu Neupane 977-61-31643  
neupanebishnu@hotmail.com  
Mr. Shiva Bastola 977-61-28255  
Mr. Raj Kumar Lama 977-61-31413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842-8828  
manilach@hotmail.com  
★ 싱가포르 센터 65-6741-7001  
chinghai@singnet.com.sg  
연락인 사무실 65-6846-9237

★ 스리랑카

콜롬보 Mr. Lawrance Fernando 94-1-412115  
lawrance@thefinance.lk

★ 태국

방콕 센터 662-674-2690  
bkk\_c@hotmail.com  
Ms. Laddawan Na Ranong 66-1-8690636  
66-2-5914571  
edaslnd@samsorn.stou.ac.th  
Mr. Wu Peir Yuan 66-1-8248294  
치앙마이 Ms. Siriwan Supatrchamnian 66-53-384128  
콘캔 센터 66-43-378112  
송크라 센터 66-74-447224

\*\*\* 유럽 \*\*\*

★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터 Chinghai@A1.net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70535  
Mr. Shih-Tsung Lu 43-664-3909200  
sound@gmx.at

★ 벨기에

브뤼셀 Ms. Ann Goorts 31-6-11-240-115  
gotske@yahoo.fr

★ 불가리아

소피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플로브디프 Mrs. Miglena Bozhikova 359-32-940726  
chinghaiplovdiv@mail.bg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zeljko@mindless.com

★ 체코

프라하 센터 42-02-6126-3031



		prague-center@chinghai.cz	norwayqy@online.no
	Mrs. Marcela Gerlova	42-0-608-265-305	★ 폴란드
		Chinghai@chinghai.cz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azak 48-91-4874953
★ 덴마크	Mr. Thanh Nguyen	45-66-190459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my@webspeed.dk	quanyin_pl@yahoo.com
★ 핀란드			로드즈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헬싱키	M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czakra@interia.pl
		hoanghanh@jippii.fi	
	Ms. Anne Nystrom	358-9-793902	★ 포르투갈
		anne.nystrom@kolumbus.fi	리스본 Mr. Joao Daniel Rosa Simoes 351-21-082-5306
★ 프랑스			lisbon_center@yahoo.com
알사스	Ms. Despretz Anne-Claire	33-3-8977-0607	레이리아 Mr. Antonio Jose Vieira Caldeira 351-2625-97924
		arclai@infonie.fr	alcoa_center@hotmail.com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 러시아
		tich.hung@infonie.fr	모스크바 Mrs. Leera Gareyeva 7-095-732-08-32
파리	센터	33-1-4300-6282	boulgakov@tri-el.ru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 슬로베니아
		ilancelot@celestialfamily.net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Ms. Ngo Thi Huong	33-1-4376-1453	dbk@siol.net
★ 독일			★ 스페인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마드리드 Mr. Gabriel Gasca Hernandez 34-91-5930413
		pureocean@web.de	Madridcenter@yahoo.es
	Mr. Christian Bastwoeste	49-30-3470-9262	Ms. Lidia Kong 34-91-5470366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201-5809-816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49-174-5265242	발렌시아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ngoc-thao.nguyen@gmx.de	Mr. Yu Xi-Qi 34-96-3347061
		dusseldorfcenter@hotmail.com	valenciachinghai@yahoo.es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 스웨덴
		HamburgCenter@gmx.de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뮌헨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moonasilver@yahoo.com
		ChingHai@aol.com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Ms. Kang Cheng	49-89-3616347	are.sweden@post.utfors.se
		love_source@t-online.de	말피 Mr. & Mrs. John Wu 46-40-215688
★ 그리스			john.wu@bolina.hsb.se
아테네	Mr. Eric Raza	30-01-6923-133	스토크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Razahidah@hotmail.com	mats.gigard@telia.com
★ 네덜란드			★ 스위스
암스테르담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m.mannaart@planet.nl	fengli@ilo.org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Ms. Klein Ursula 41-22-3691550
		vo-khong@wanadoo.nl	
★ 헝가리			★ 영국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임스위치 Mr. Shahid Mahmood 44-1473-436961
		budapestcenter@freemail.hu	shahidm@ntlworld.com
	Mr. Lux Tamas	36-304273364	런던 Mr. Nicholas Gardiner 44-2089-773647
	Ms. Dora Seres	36-1379-1924	Mrs. C. Y. Man 44-1895-254521
기요르	Mr. Lehel Csaba	36-96-456-452	pnl@matters19.freemove.co.uk
		clehel@freemail.hu	44-1782-412728
★ 아일랜드			l.wellers@ntlworld.com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서리 Mr. C. W. Wo 44-1293-416698
		bernardleech2003@yahoo.co.uk	stmchwo@hotmail.com
★ 노르웨이			★ 스코틀랜드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2002@yahoo.co.uk
			*** 오세아니아 ***



★ 호주

애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leonadelaide@hotmail.com  
브리즈번 센터 briscentre@telstra.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telstra.com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바이런베이/ 노던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9-1282  
rayandjulie@linknet.com.au  
캔버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멜버른 센터 melbsmch@aol.com  
Mr. & Mrs. Rob Nagtegaal 61-3-5282-4431  
rosrobbery@aol.com  
Mr. Phong Minh Tan Do 61-3-9850-2553  
phongloveme@yahoo.com  
Mr. Alan Khor 61-3-9857-4239  
ckhor@bigpond.net.au

퍼스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Mr. Ly Van Tri 61-8-9244-7661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Hong Bo 61-2-48445170  
hongbo\_huang@hotmail.com  
Mr. Ly An Thanh 61-2-9823-8223  
anbinh\_sydney@yahoo.com.au

★ 뉴질랜드

오클랜드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Mrs. Anne Lester 649-625-1809  
annenz@eudoramail.com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nzchchsmch@hotmail.com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hamnzcont@yahoo.co.nz  
넬슨 Ms. Sharlene Lee 64-3-5391313  
shale@ihug.co.nz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 (미국)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13/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 바랍니다.)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la\_bookstore@yahoo.com  
팩스: 1-909-738-9992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16

뉴스그룹

이메일: lovenews@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031-772-9250  
팩스: 031-772-9258  
(영어나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무상예술 연락처

이메일: hounrli@kornet.net  
전화: 054-532-5821  
팩스: 054-532-5822  
(천의, SM 보석, 해피요기, 만세동, 그림... 등의 주문을 원하시는 분은  
영동 센터로 문의해 주십시오.)



# 빛과 소리는 우리의 유일한 의지처다

청하이 무상사/ 1996. 7. 30. 캄보디아 레이징 센터 (원문 영어)

오직 내면의 빛과 소리만이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 온갖 업장들,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온갖 짐덩어리를 다룰 때 이 세상에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빛과 소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내려올 때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신의 왕국을 기억하고 신의 왕국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신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자 장비입니다. 사업과 가정, 개인적인 애정 관계 등에서 겪는 온갖 어려움은 여러분에게 문제만 일으키며, 그것들은 여러분이 신의 왕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신은 이것을 미리 아시곤 빛과 소리라는 장비를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문제들을 잘라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빛과 소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비행기가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처럼 빠르고 순조롭게 여기 캄보디아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라도 여러분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직장에서나 사업에 그 어떤 문제라도 생기면 그냥 앉아서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보다 또렷해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알게 되거나 문제가 저절로 사라집니다. 때로 이 세상은 특정한 일로써 혹은 특정한 시간이나 특정한 요구들로 우리에게 엄청난 압박감을 주고 정말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아, 신이여! 난 할 수 없어. 이제 시간은 하루, 만나절박에 없는데 다른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이 일을 지금 당장 해치우고 싶는데 판 일들이 계속 생겨 귀찮게 만드네.” 하지만 명상을 얼마간 하고 나면 세상은 문젯거리를 철



회합니다. 아니면 문제가 슬그머니 사라져 우리는 괜히 당황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스승님 웃음) 그러니 그냥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냉-정-. (스승님과 대중 웃음) 사랑하는 여러분, 냉정을 유지하세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그러면 모든 게 좋아집니다.

내면의 직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지만 때로는 그게 어렵지요. 여러분은 어떤 목소리가 가장 강한지 알고 그 강한 직감을 꼭 갖게 견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로 여러분 느낌에 이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계속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일이 더 낫고 지금 하는 일은 쓸모가 없어졌다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그 일은 이제 소용없어. 어서 방향을 바꿔서 이것저것을 하는 게 낫다니까.”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선 현재의 일을 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갈등이 생겨 마음이 사분오열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때는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부처의 음성, 내면의 직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소리 없는 목소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 줄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최소한 어느 쪽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지금 하는 말들은 모두 내 경험에서 나온 것들이지 책에서 본 게 아닙니다. 책은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금방 말한 방법은 언제나 효과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외 어디에다 몸을 숨길 것이며 또 무엇으로 이런 세상을 처리하겠습니까? 건디기 힘든 고통과 터무니없는 일들이 이토록 많고 너무나 많은 압박이 우리의 작은 몸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너무나도 걱정스럽고 불안해집니다. 관광과 관음은 바로 이런 순간에 유일하게 필요한 방법입니다.





2003 여름 천의  
행복한 심신과 영혼을 위한  
새로운 린넨 니트 컬렉션

디자인: 정하이 무상사

통기성 우수, 구김 걱정 끝  
새로운 린넨 니트 컬렉션

피부가 편안히 숨쉬는 린넨 소재는 그 편안하고 자유로운 느낌 때문에 옷이 몸과 영혼에 꼭 맞는 행복함을 준다. 이번 컬렉션은 구김 방지 기능을 한층 강화한 독특한 편직 방식으로 짜여진 린넨을 위주로 매끄럽고 광택이 도는 비스코스 레이온을 합성해 만들어져 감촉이 부드럽고 섬세하며 로맨틱하다.

섬유의 여왕, 린넨

천연 소재로서 은은한 향을 내는 린넨은 땀 흡수성과 열 발산이 뛰어나며, 부식과 해충, 박테리아, 알칼리, 산에 강한 우수하고 실용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 '섬유의 여왕'이라는 평을 얻게 되었다.



# 정하이 무상사 새로 나온 DVD

737 <중국어, 자막 없음>

##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하라

2002. 5. 11. 미국 플로리다 센터



‘현재 지구의 이상기온 현상은 업장과 관련이 있는가?’ ‘가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스승님은 물을 아껴 쓰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알려 주셨다. 스승님으로부터 수많은 우주 행성들의 탄생과 소멸에 대한 말씀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 우리 마음과 기분에 영향을 미치는가? 명상의 빠른 진보를 거둘 수 있는 비결은? 전보다 더 많이 명상하는데도 왜 쉽게 삼매에 들지 못하는가? 일부 동수들은 오랫동안 수행했는데도 아무런 진보가 없다고 느낀다. 이를 돌파할 방법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걸 가까운 이들에게 미리 알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스승님이 이 세상에 영원히 머무르시길 바라는 제자들의 갈망에 대한 스승님의 응답은? 그러한 요청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 모든 의문점들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이 DVD에서 찾아보시길.

739 <중국어, 자막 없음>

## 스승님의 화신

2002. 5. 12. 미국 플로리다 센터

스승님은 늘 열심히 수행하고 명상하라고 격려하신다. 그런데 왜 새로운 입문자들이 많이 명상하는 것에 대해선 반대로 말씀하시는가? 히말라야에는 신통이 대단해 무수한 화신을 나눌 수 있는 큰스승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인류는 우주의 자연순환 체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는가? 이 진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방법은? 눈을 뜬 채 보는 스승님의 화신과 명상 때 보는 내면의 스승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일상생활 중에서도 육신으로 나타난 스승님의 화신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DVD에는 위의 주제들에 대한 스승님의 명쾌한 해설뿐 아니라 화신 스승님을 만난 동수들 본인과 그 친척들의 신기한 체험들도 담겨 있다. 이 멋진 이야기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741 <중국어, 영어, 자막 없음>

## 밀레니엄 전야제

1999. 12. 31. 태국 방콕 국제 선육

1999년 12월 31일 밤, 태국 방콕에선 새로운 세기, 인류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성대한 밀레니엄 전야제가 열려 매혹적인 공연이 끝없이 펼쳐졌다. 이날 밤 새 천년으로 들어가기 바로 마지막 몇 분 전, 스승님은 모두와 함께 명상하시며 세계 평화와 모든 이들이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하셨다. 공연이 끝난 후 스승님은 유머스럽고 감동적인 말씀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지으셨다. 이 말씀 와중에 스승님은 새로운 황금시대로 순조롭게 들어서길 기원하시는 한편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름답고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견하셨다. 경이와 환희에 가득 찬 이 DVD엔 영혼을 고양시키는 기운이 넘쳐흐르고 있다!